

A black silhouette of a cat is centered against a vibrant, golden background.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bright, radiating light beams and numerous small, sparkling particles, creating a magical and celebratory atmosphere. The cat's silhouette is simple and stylized, showing its ears, body, and tail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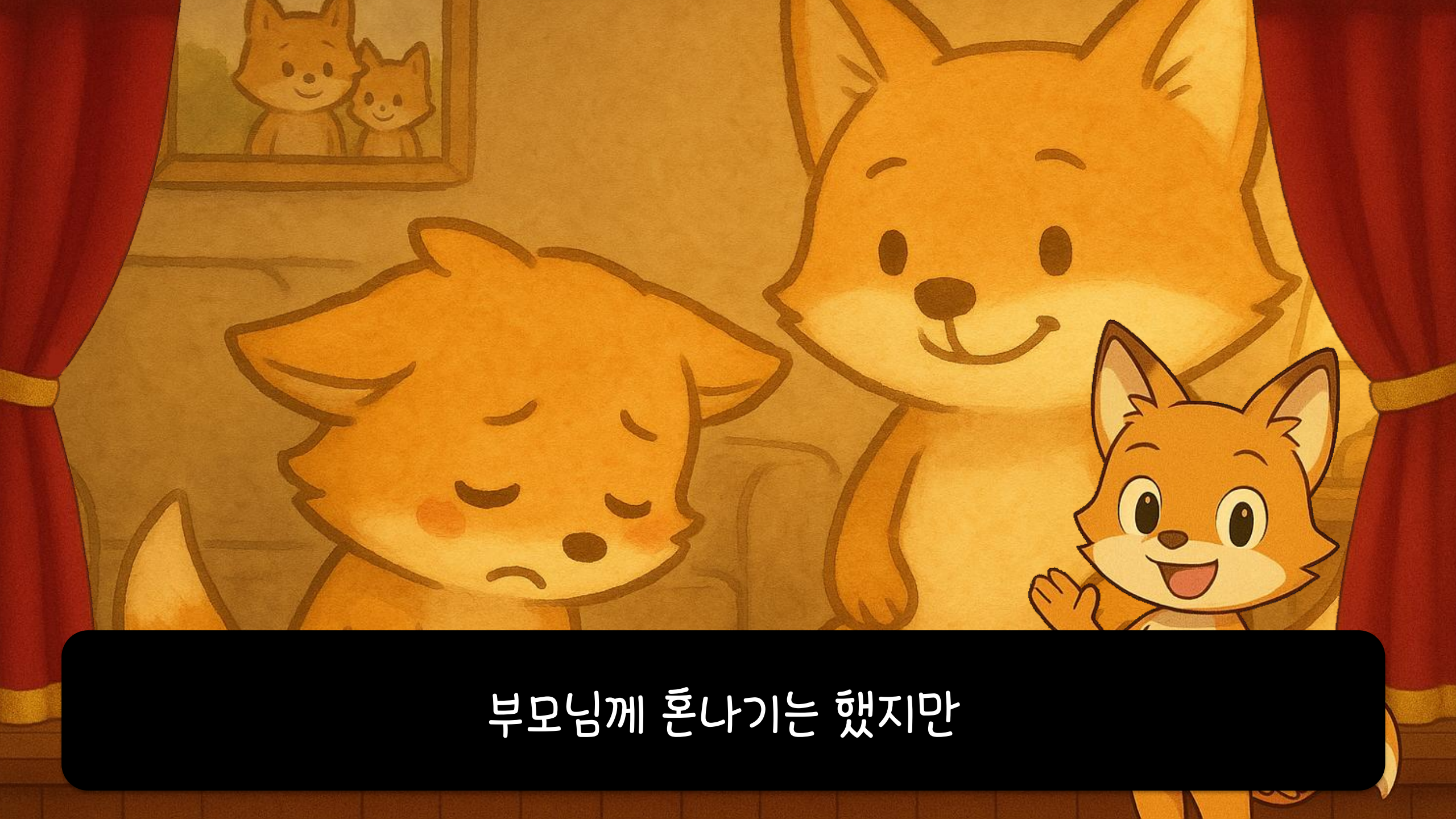
**1화. 전학생이 왔어요!**



안녕, 나는 루루.



친구들과 인간 세상을 탐험하고  
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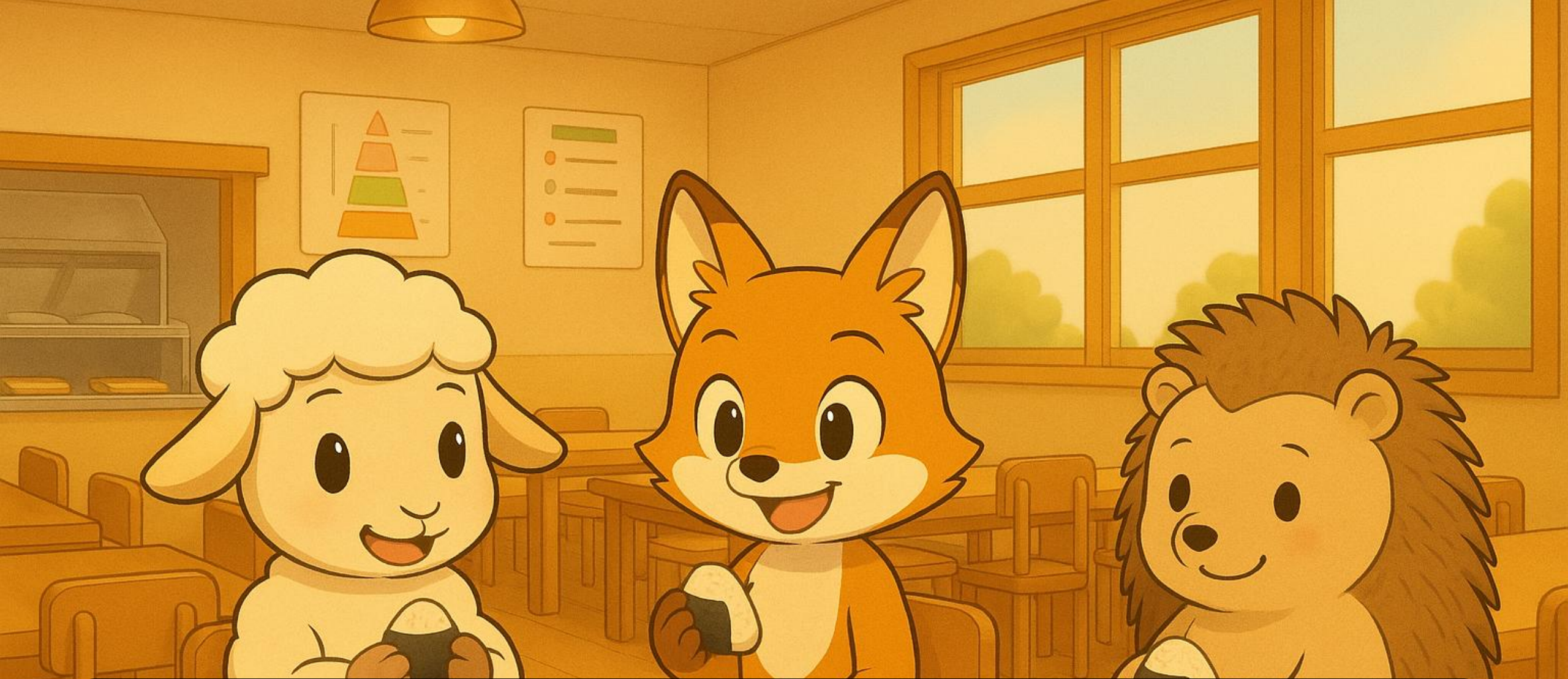
부모님께 혼나기는 했지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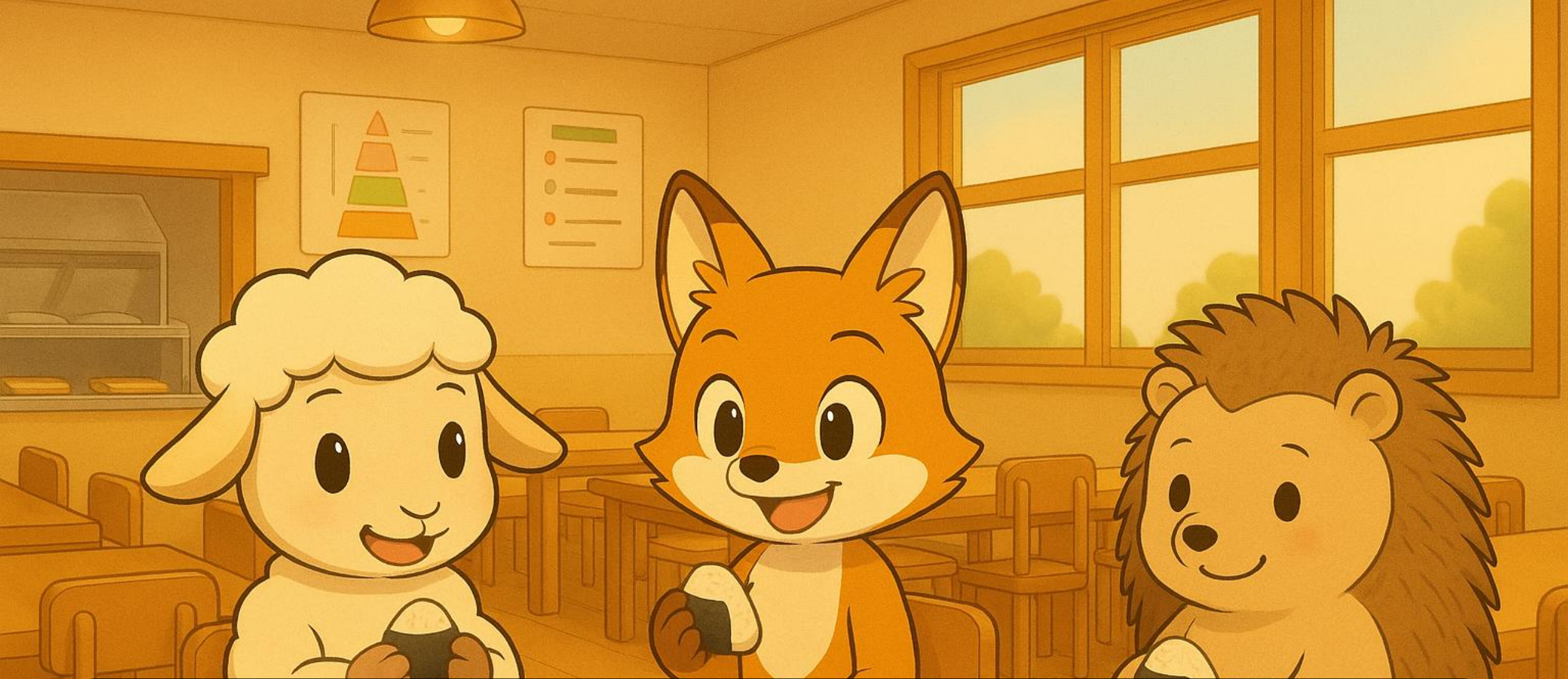
친구들과 수학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알찬 시간이었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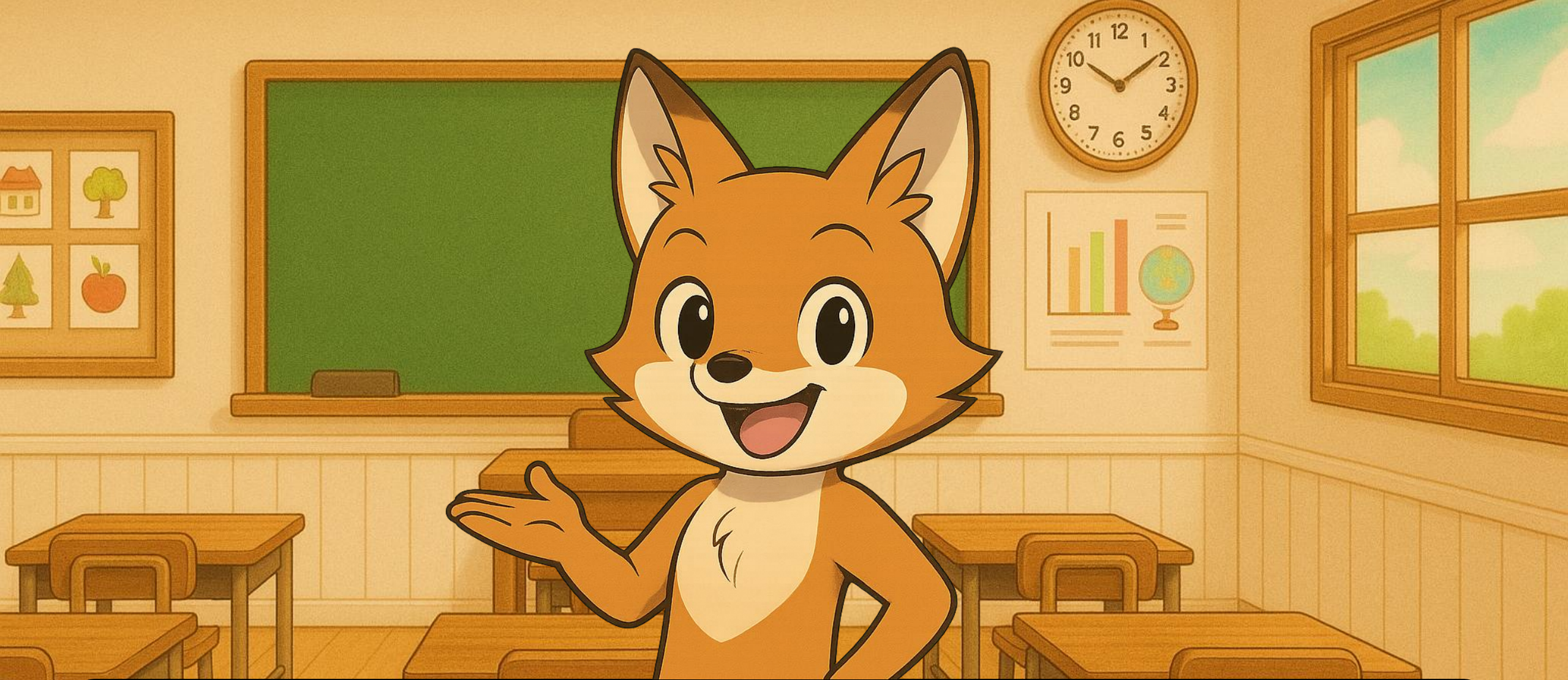
그 뒤로 우리는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.



특히 오늘은 날씨도 좋고



급식도 내가 좋아하는 주먹밥이 나왔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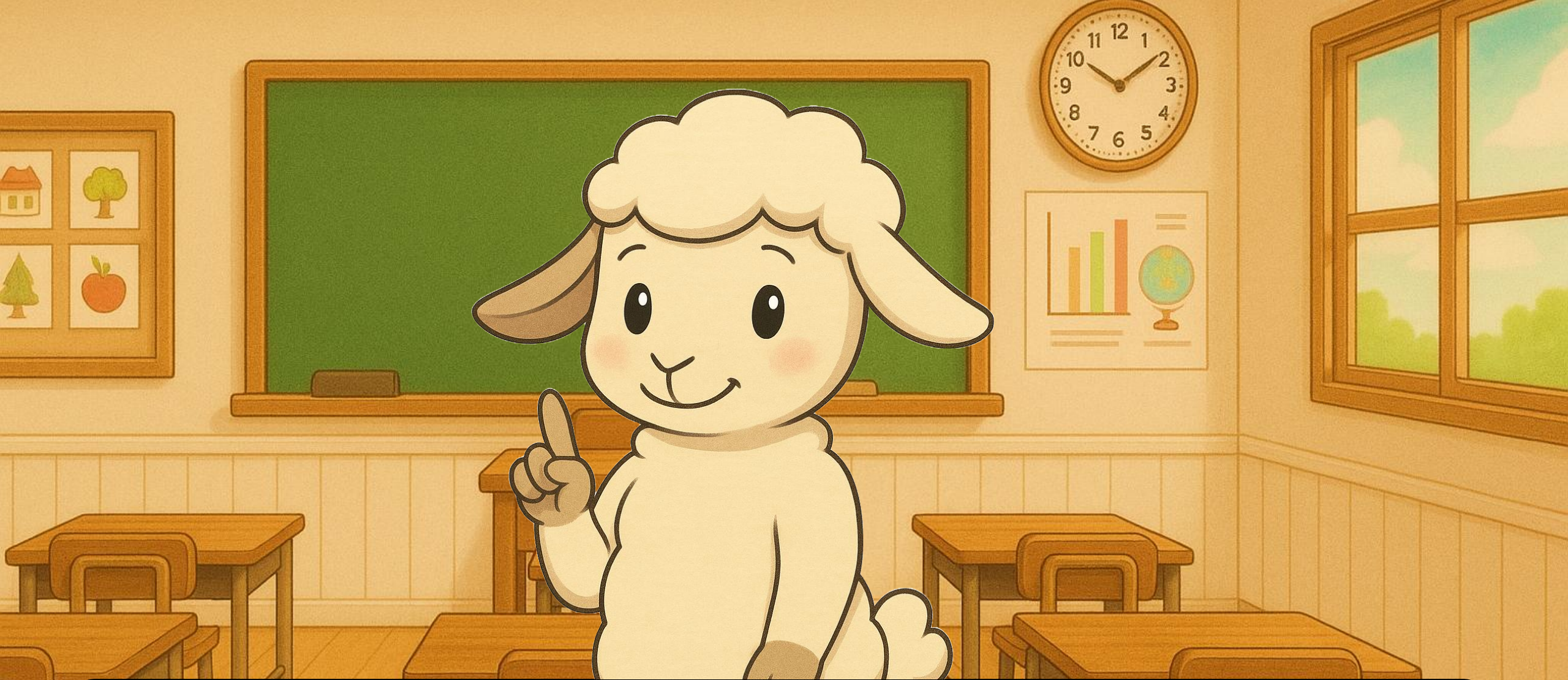
남은 점심 시간 동안 뭉치랑 치치랑 모여서  
틀린 그림 찾기를 하기로 해서 기분이 좋아.



나는 눈썰미에는 자신 있거든!



“틀린 그림 찾기 대결이다~  
다섯 개 먼저 찾는 사람이 승자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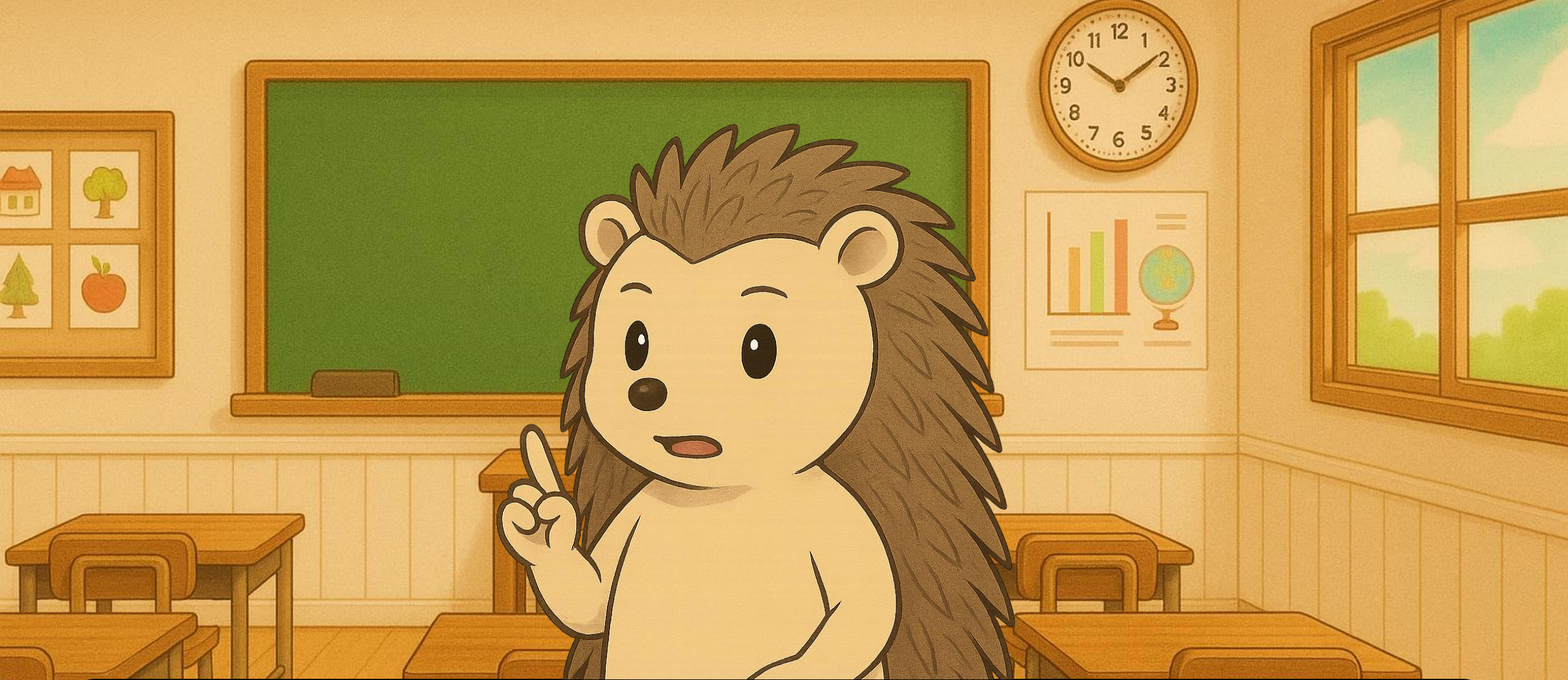
하고 외치자마자 뭉치가 바로 찾아 짊었어.



“우왓, 이 속도 뭐야? 너 몰래 연습했지?”



“아냐아냐, 그냥 눈에 보여서...”



치치는 조용히 꾸준히 잘 찾지 뭐야?!

도전! 여러분도 찾아보세요!

교과서 38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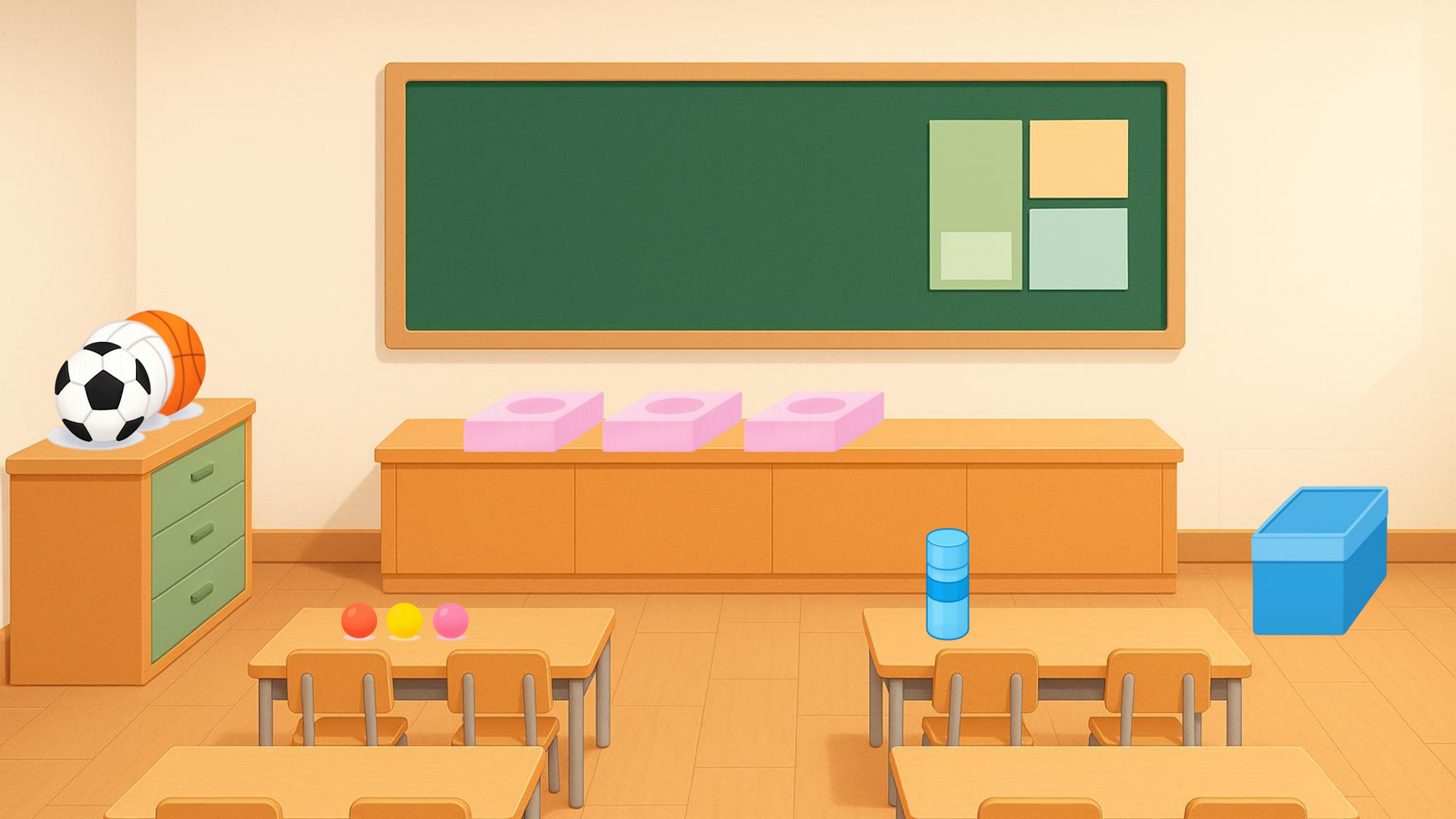
1반과 2반의 교실은 비슷하게 생겼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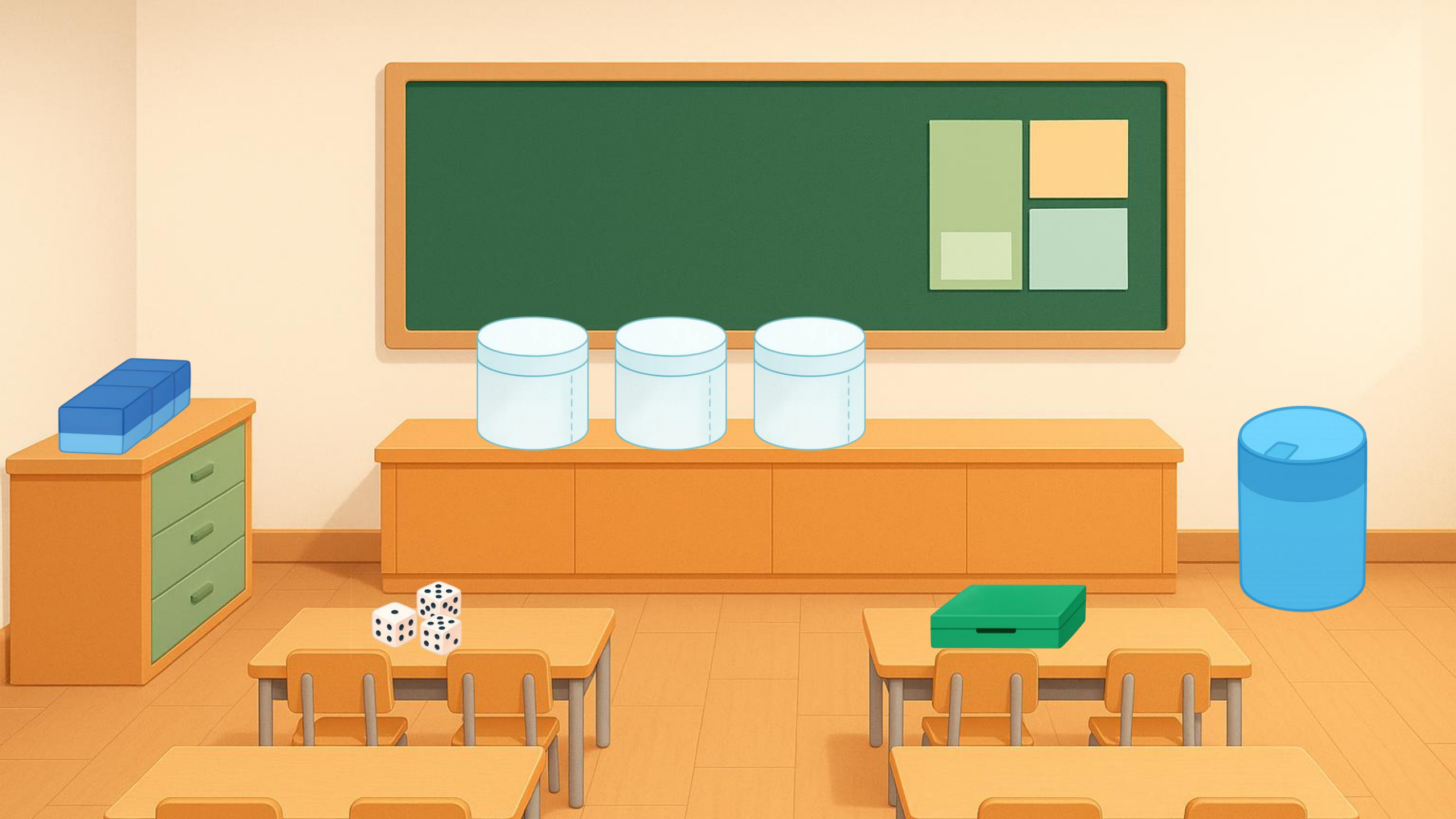
교과서 38쪽

그런데 같은 장소에 다른 물건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.

교과서 38쪽

다른 물건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봅시다!





정답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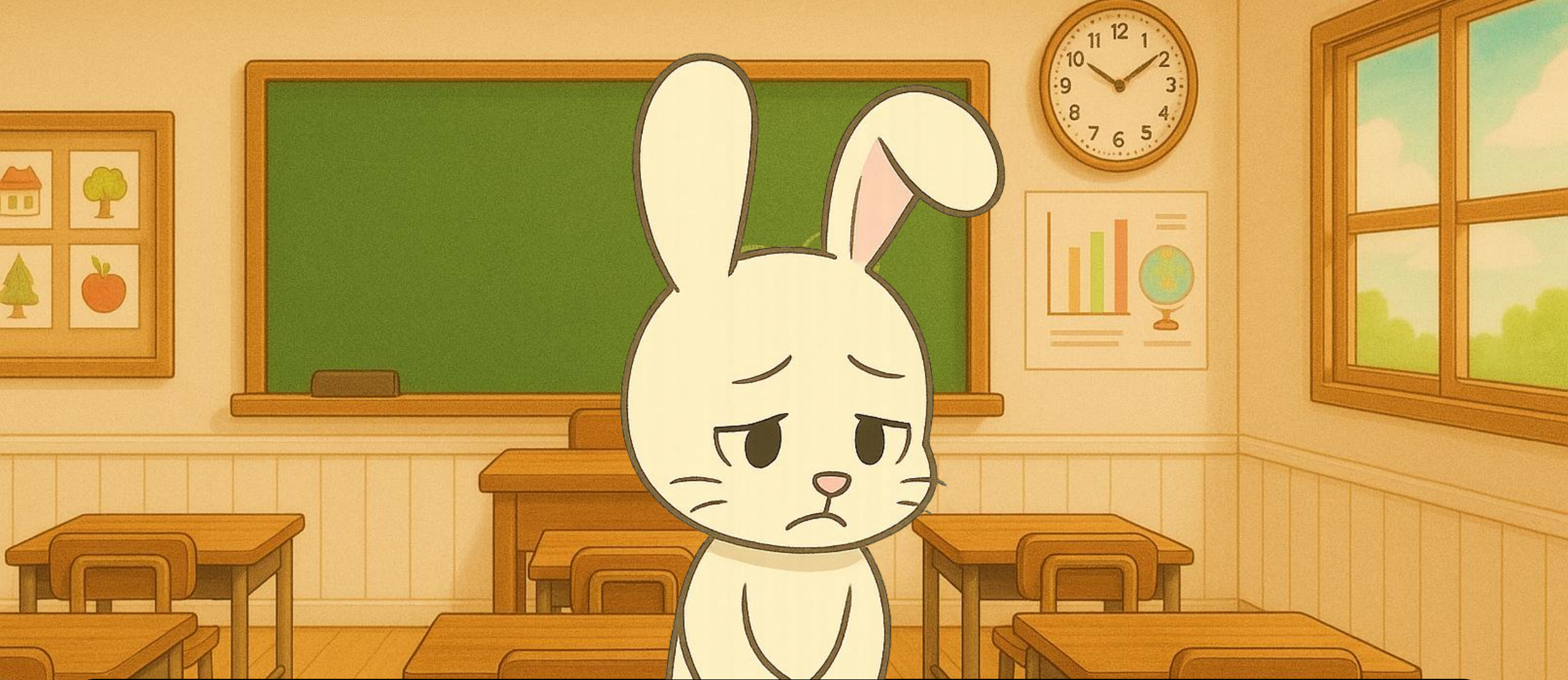


당연히 내가 일등이라고 생각했는데  
다들 잘해서 막상막하였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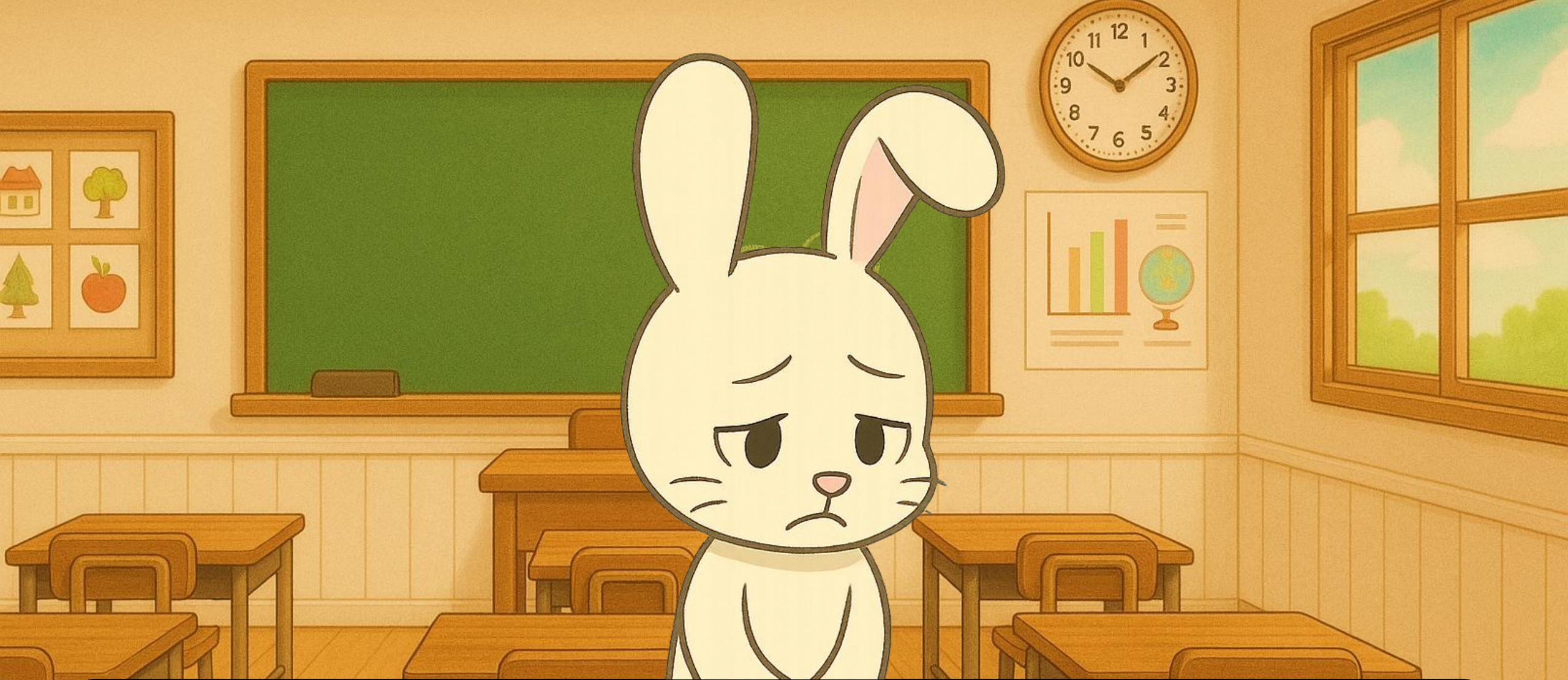


베그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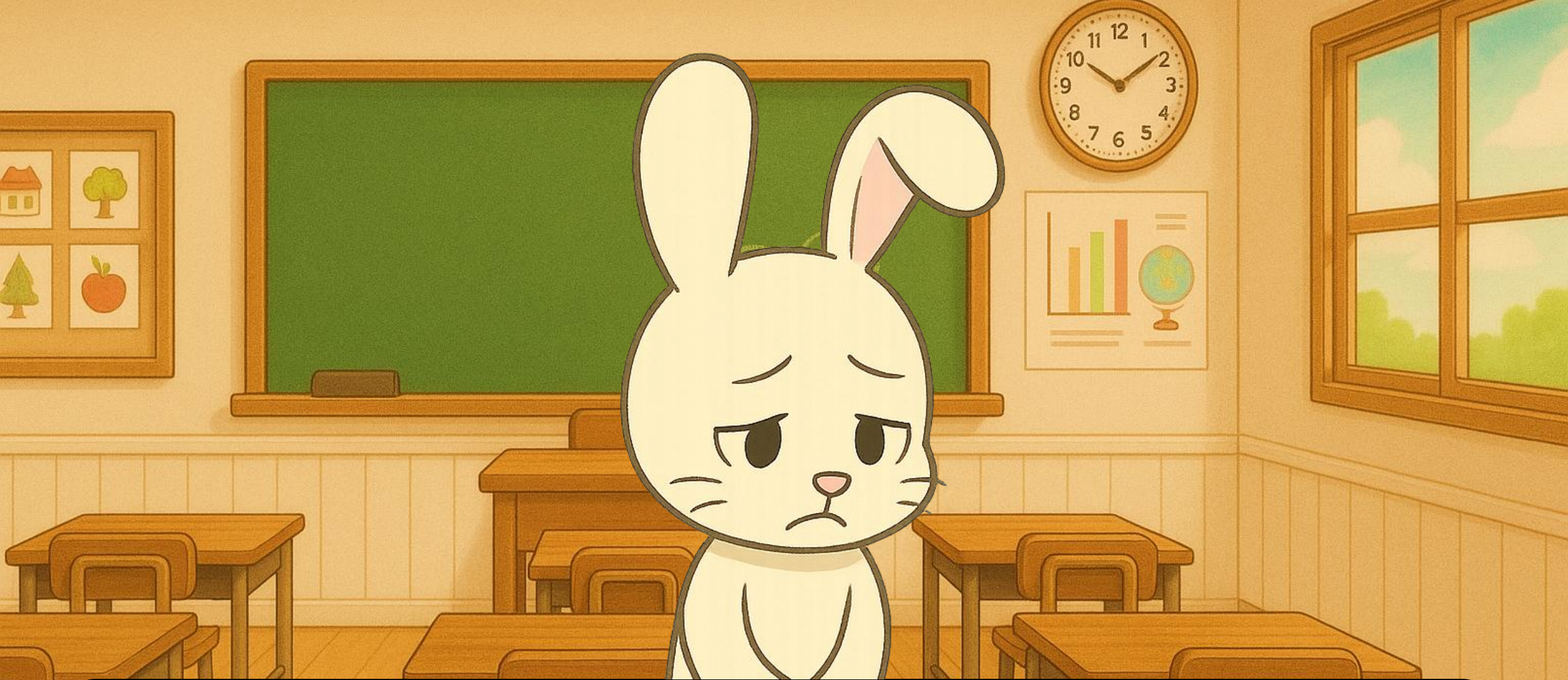
그때, 교실 문이 베그덕 하고 열렸어.



조용히 고개를 숙인 토니가 들어왔고,  
코끝을 훌쩍이며 한숨을 내뿔었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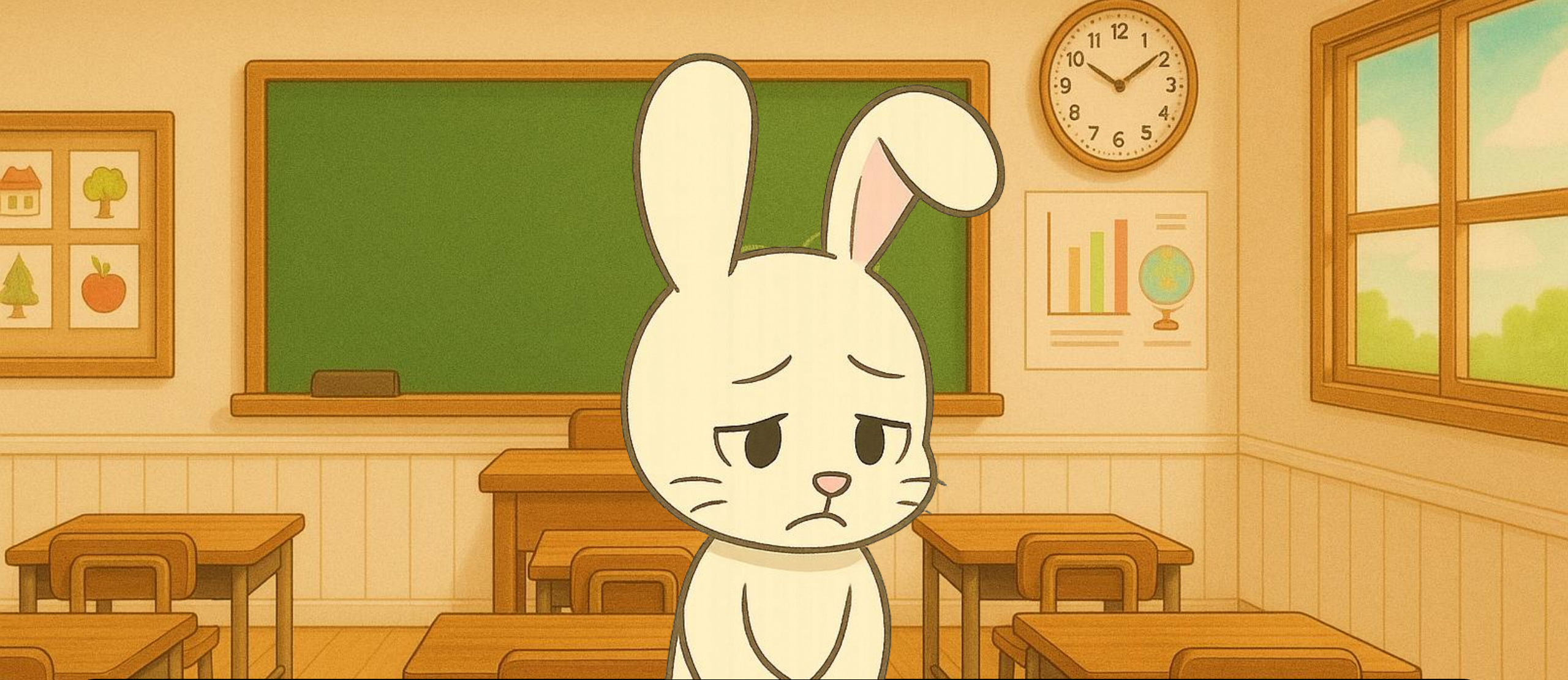
우리가 바라보는 사이, 토니는 조용히 말했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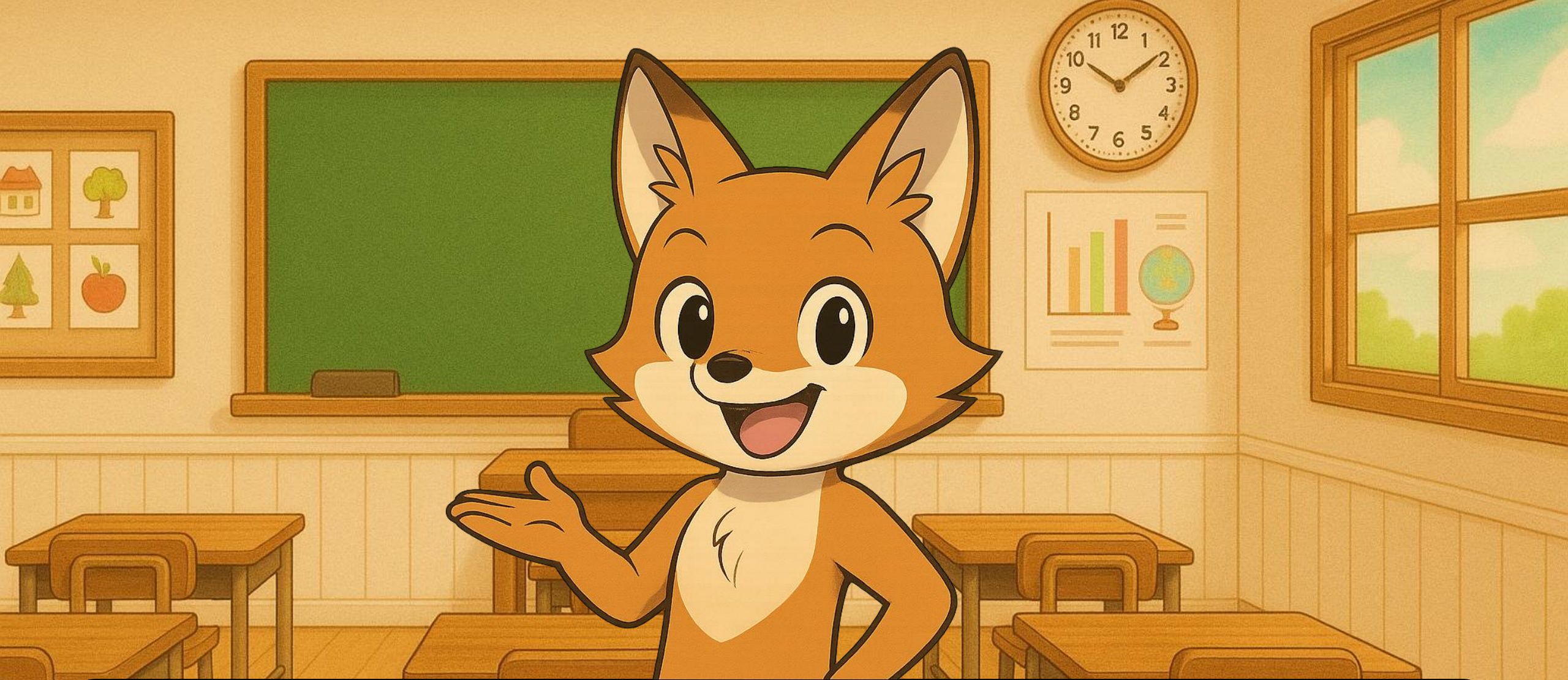
“무...물건을 잃어버렸는데... 좀 도와줘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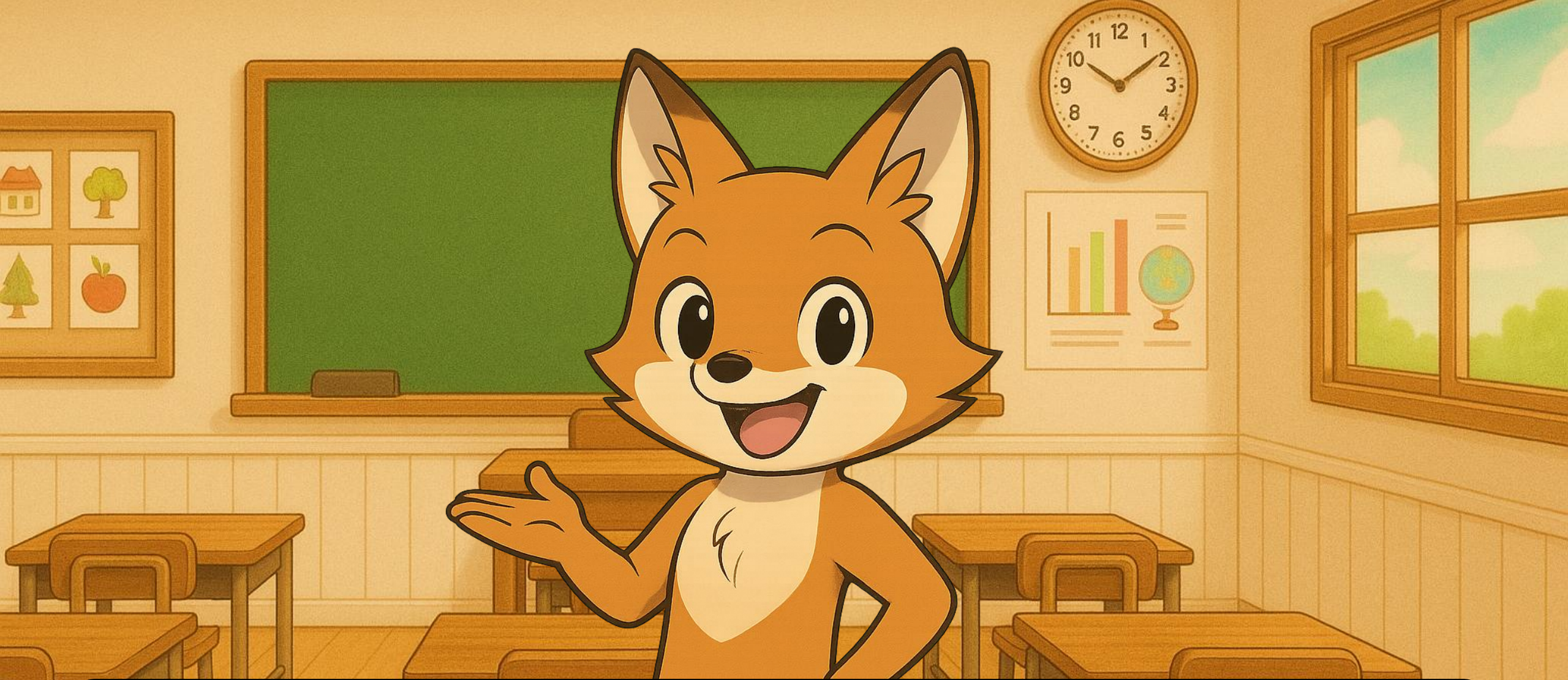
“어떤 물건인데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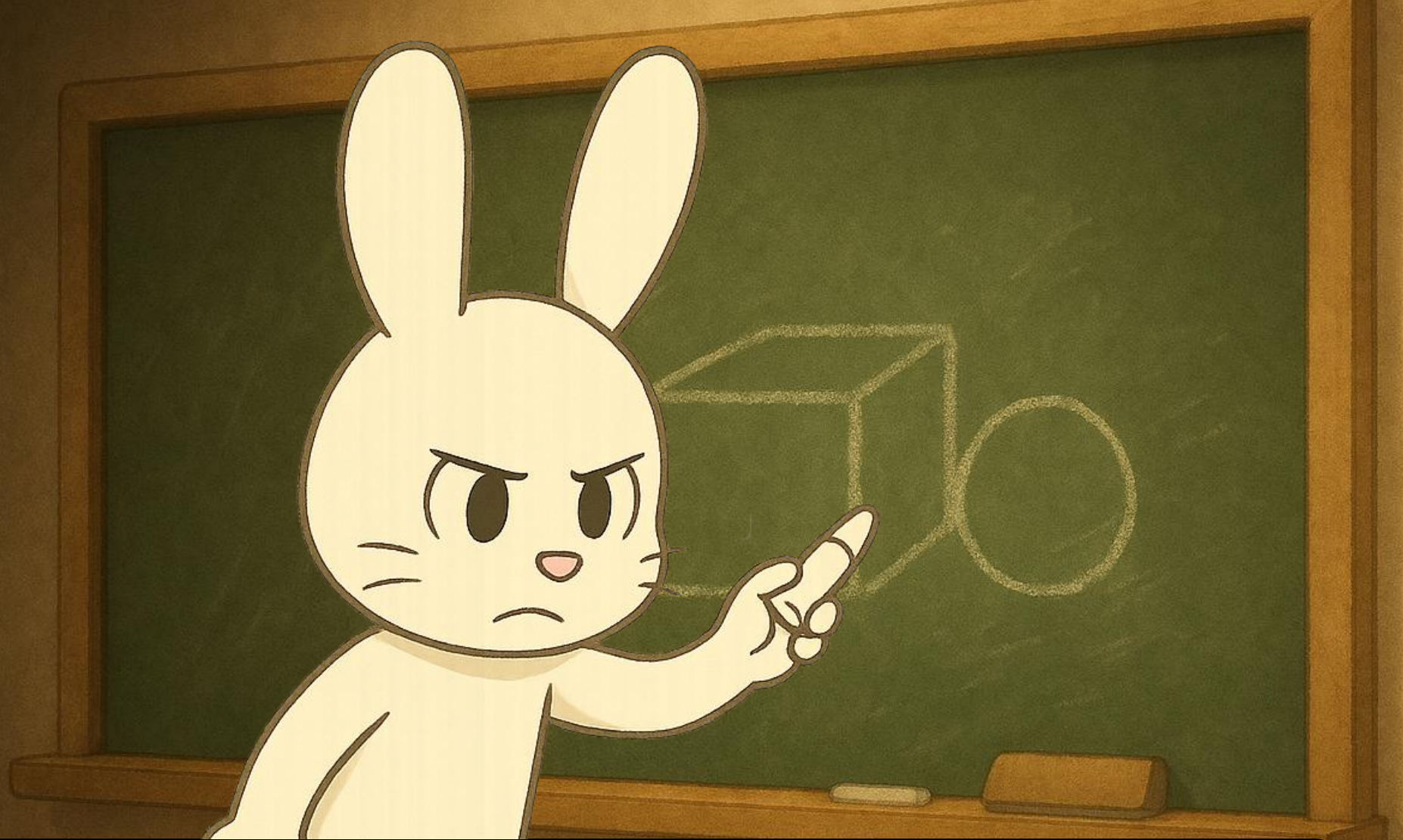
“그런데,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.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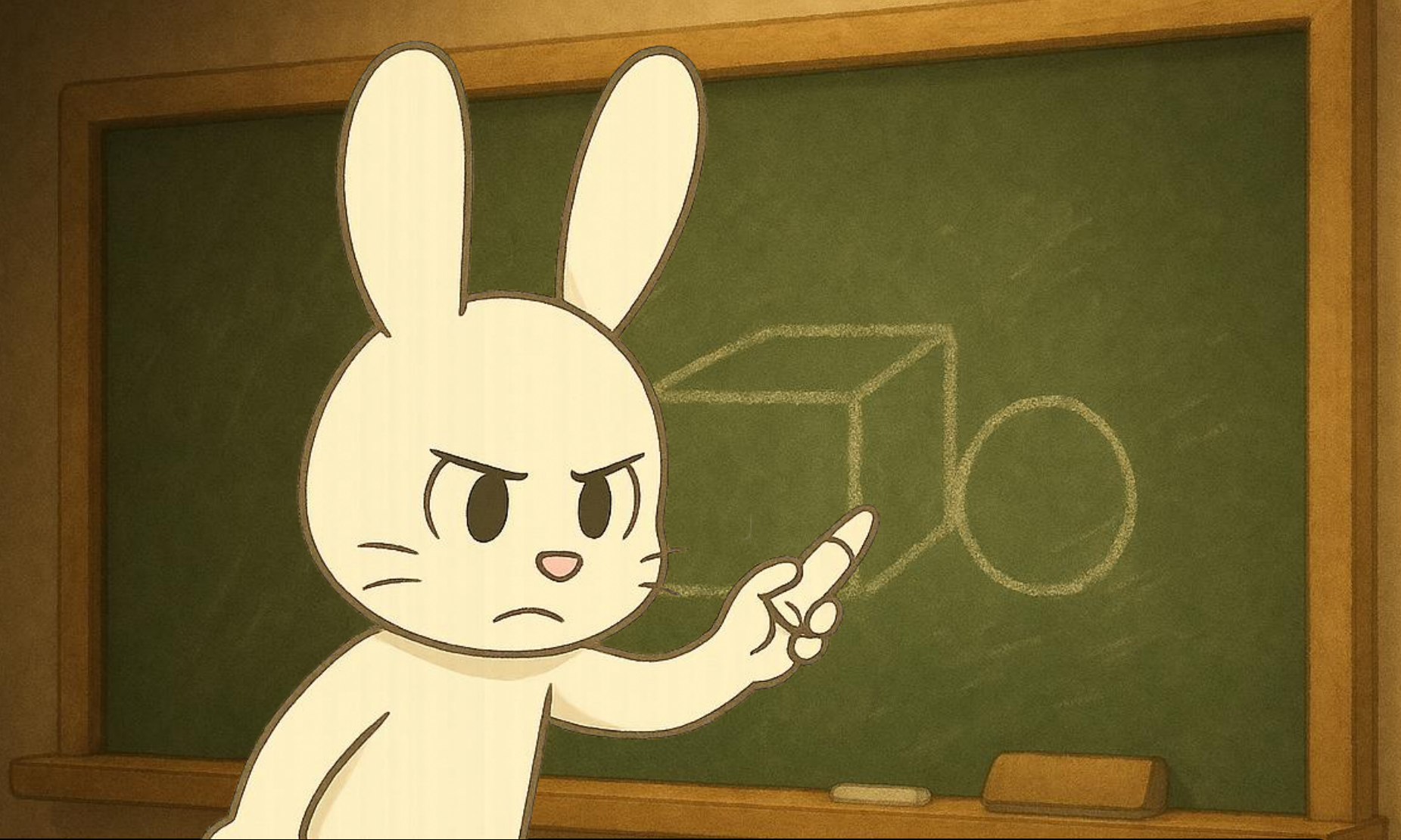
뭉치와 치치는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고,  
나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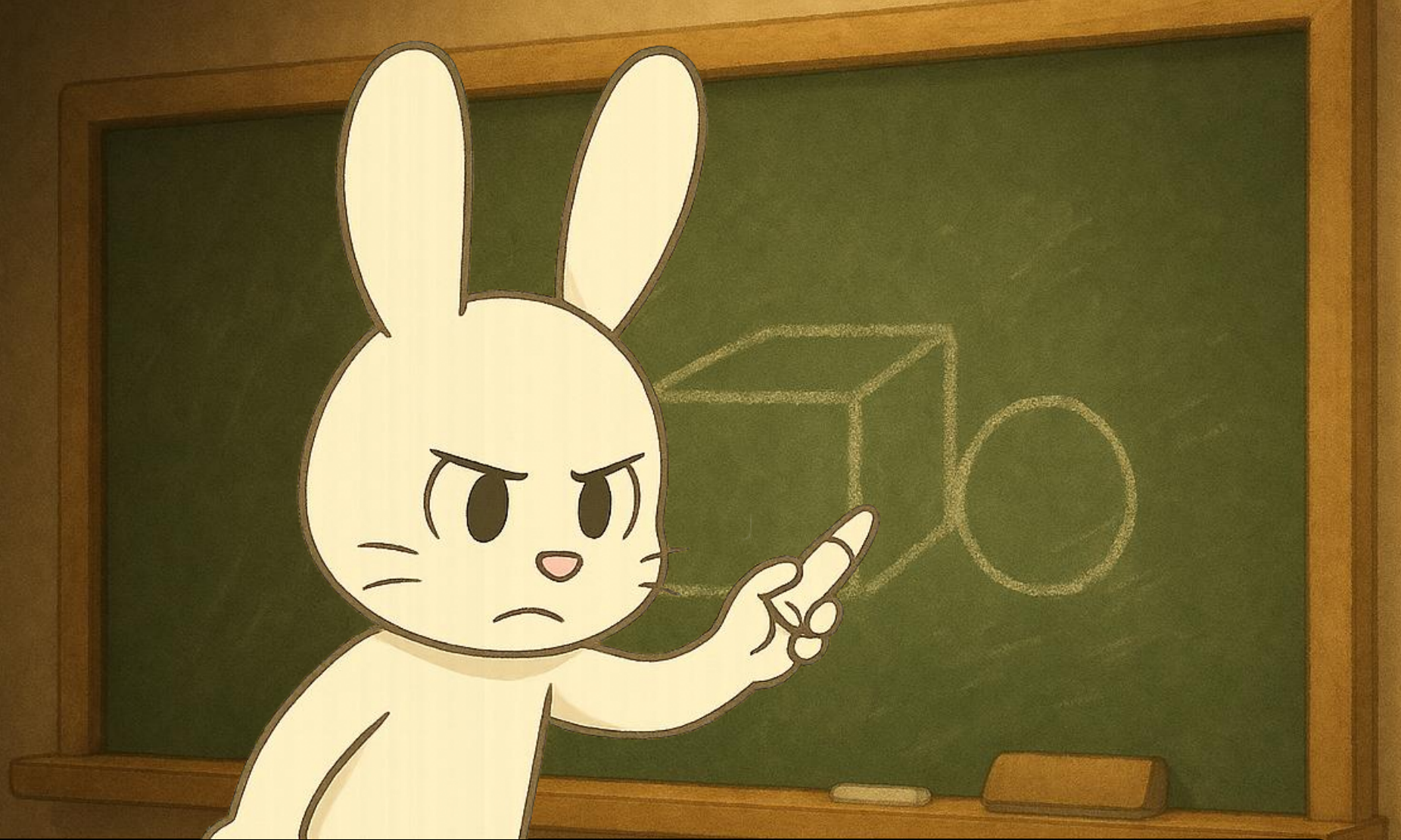
“그럼 그냥 그림으로 그려봐!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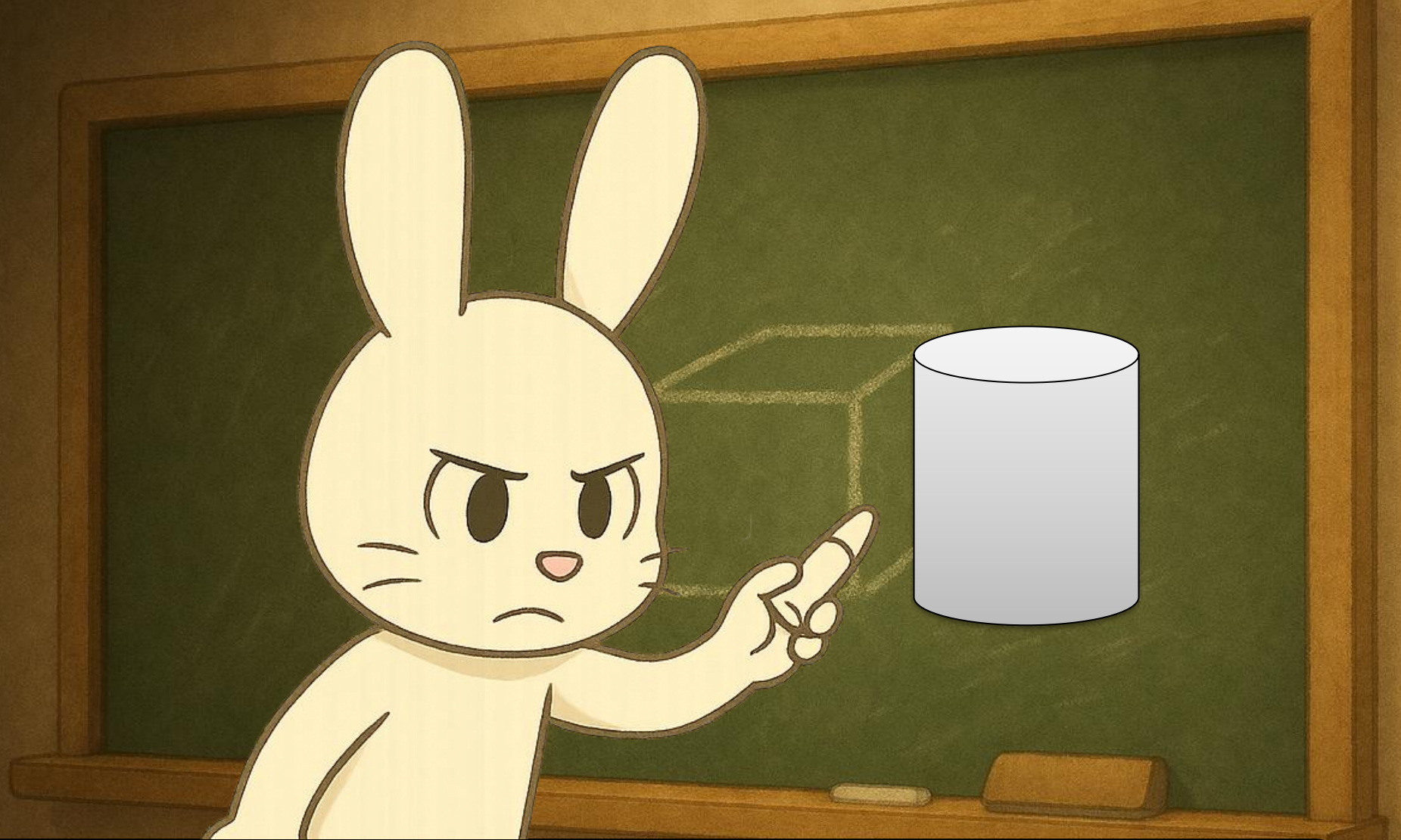
토니의 손에 분필이 쥐어졌고



토니는 조심스럽게 칠판 한쪽에  
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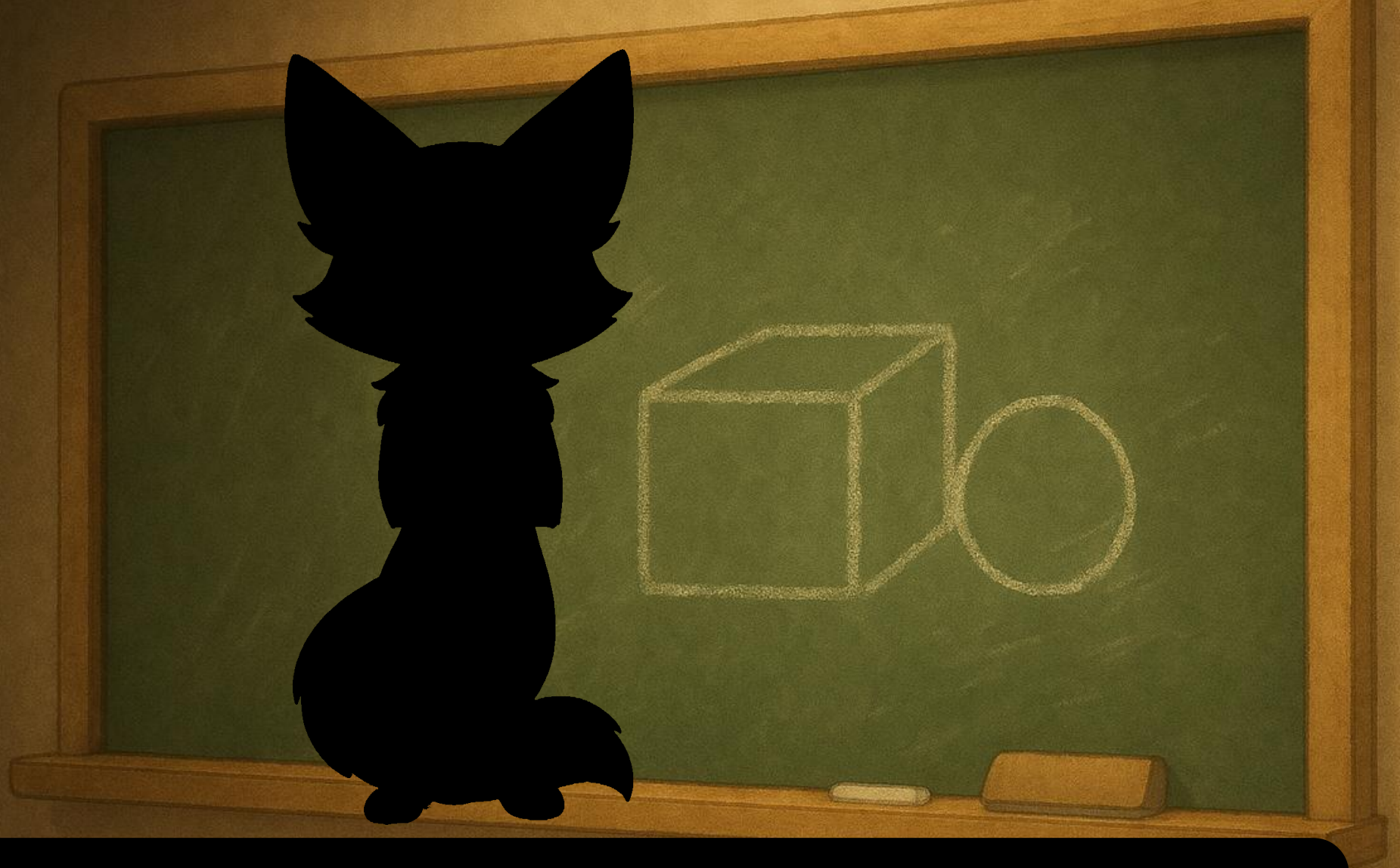
어설픈 선, 동글동글한 윤곽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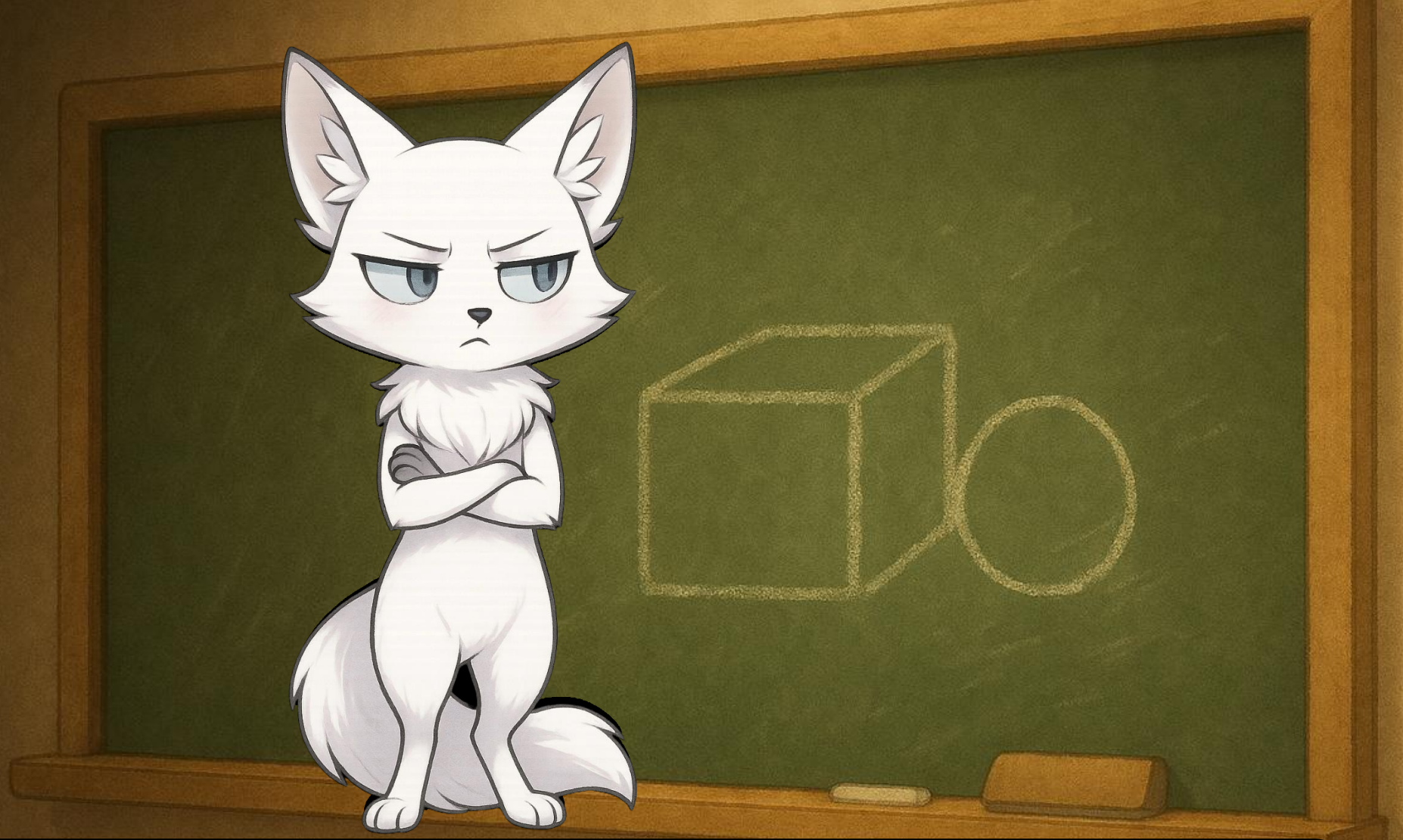
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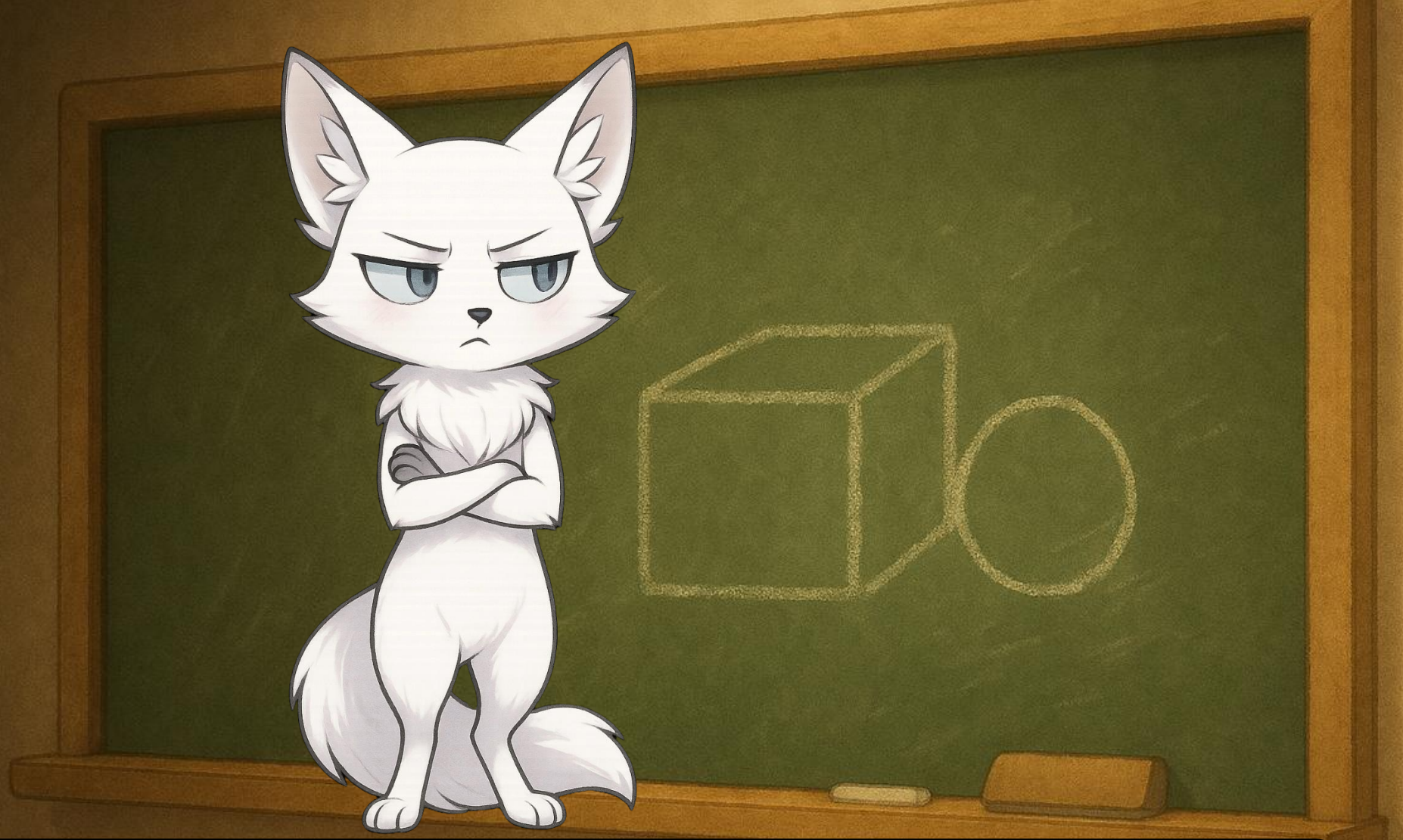
그때였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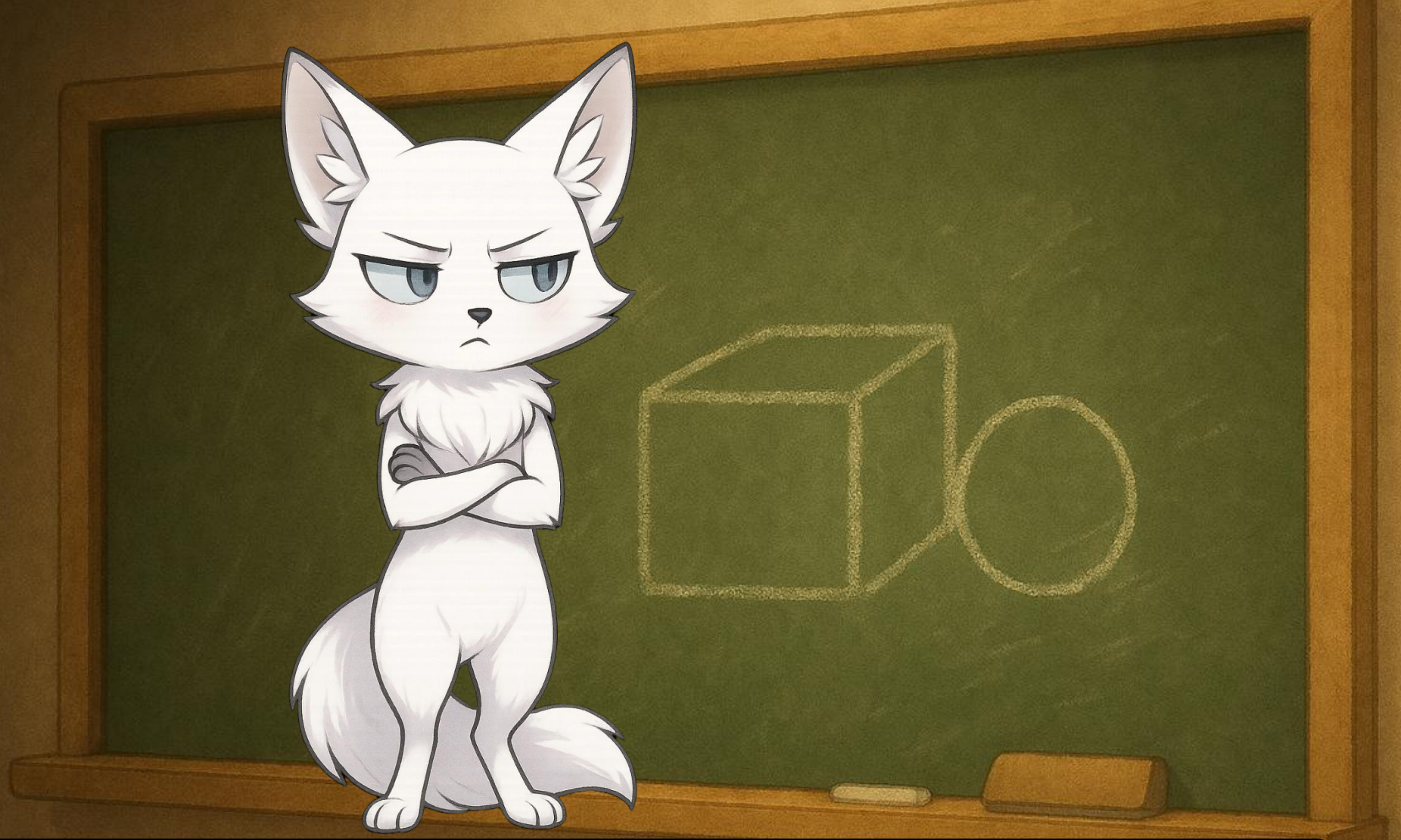
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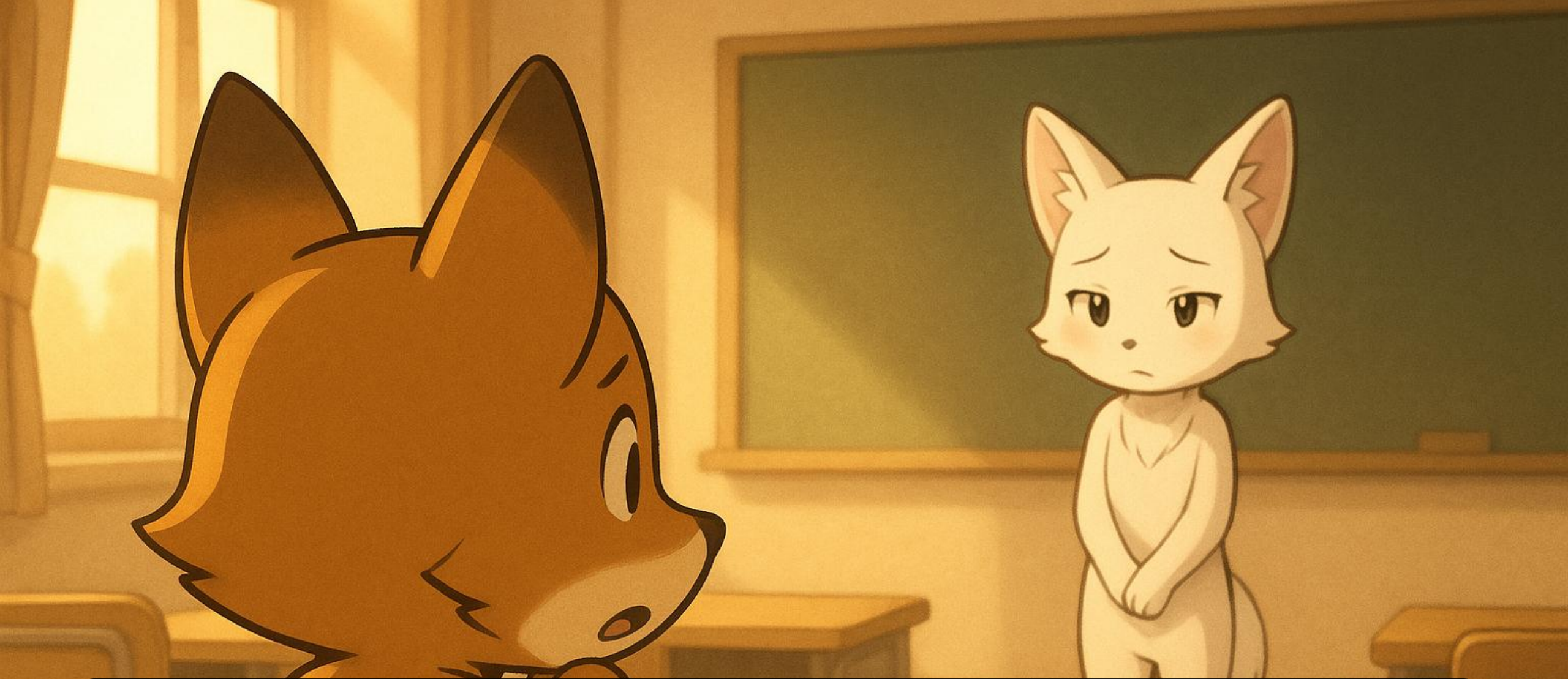
난 바로 알아챘지. 설이다.



설이는 이번에 우리 반으로 전학 온 친구야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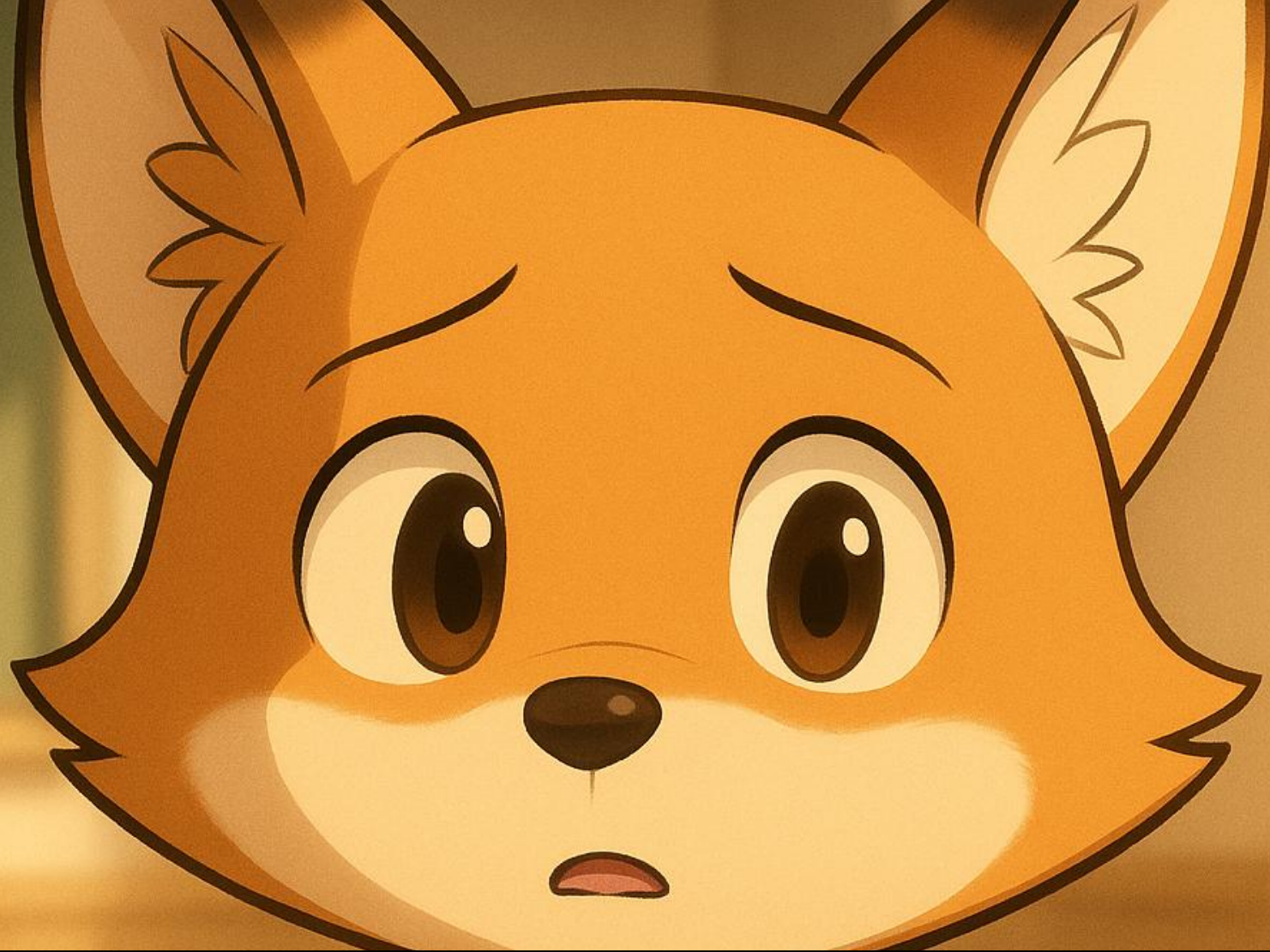
사실 난 설이가 계속 신경쓰였어.



나와 같은 여우라  
그 애가 전학 온 날부터 계속 신경 쓰였거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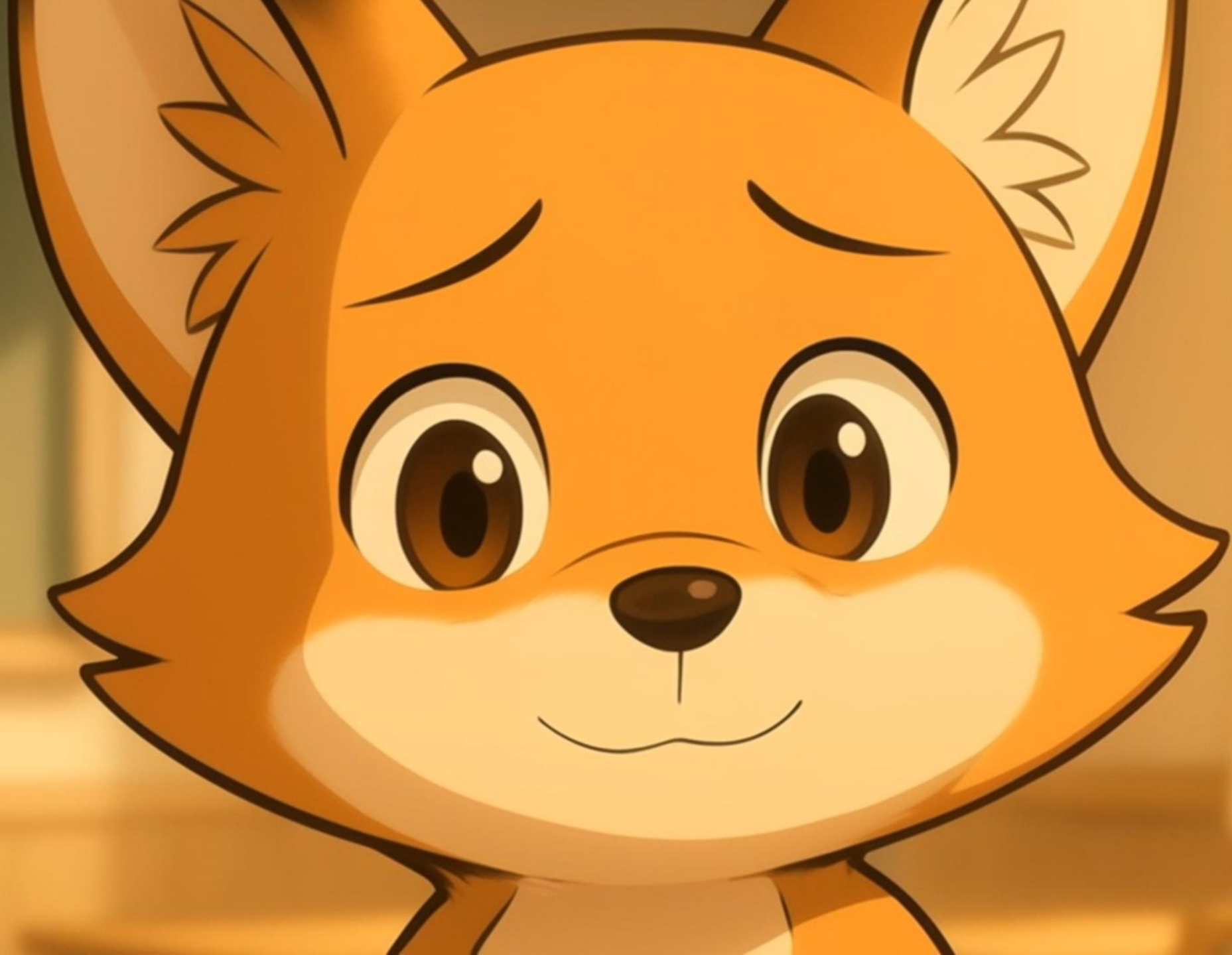
아빠가 외교관이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대.



그래서 친구 사귀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걸,  
난 눈치챘지.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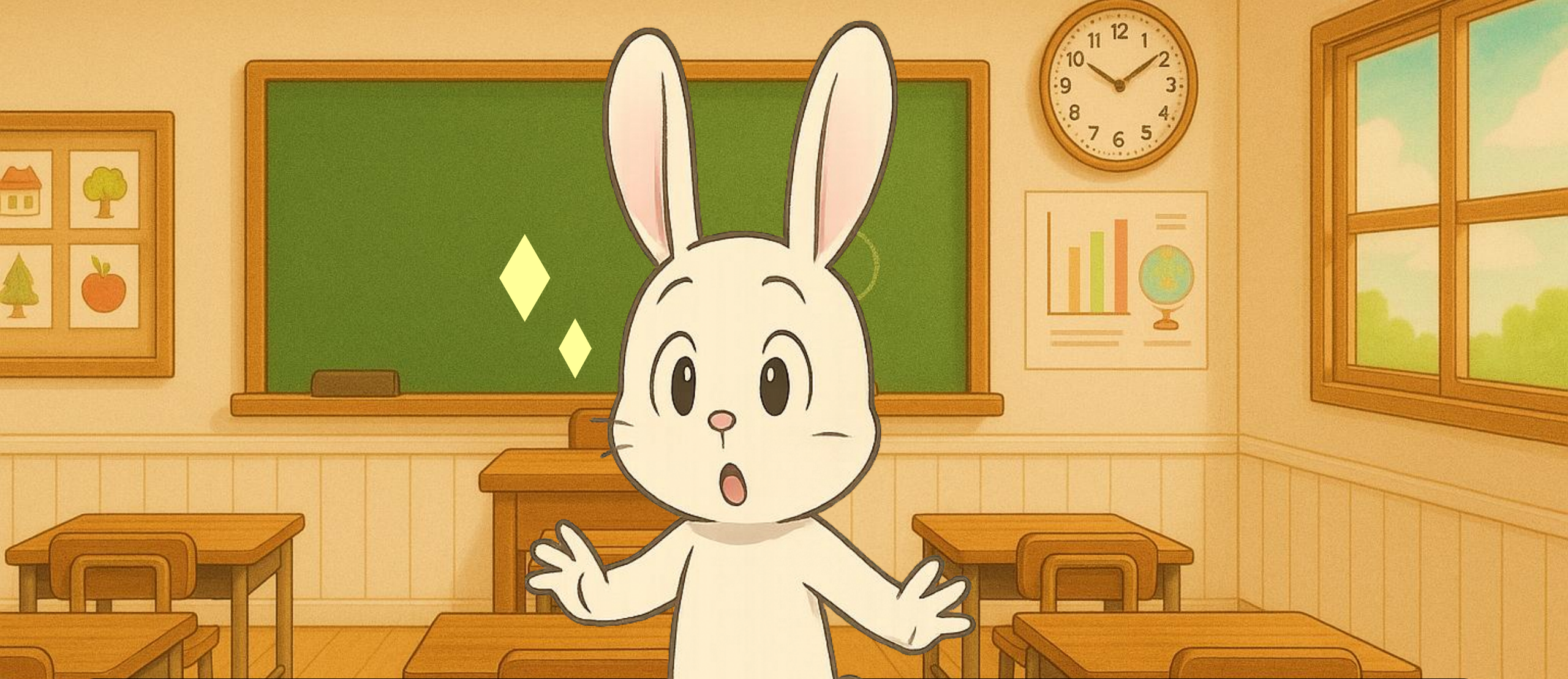
설이는 말 없이 그림을 뺀히 보더니,  
교실 뒤쪽으로 가서 뭔가를 집어 들었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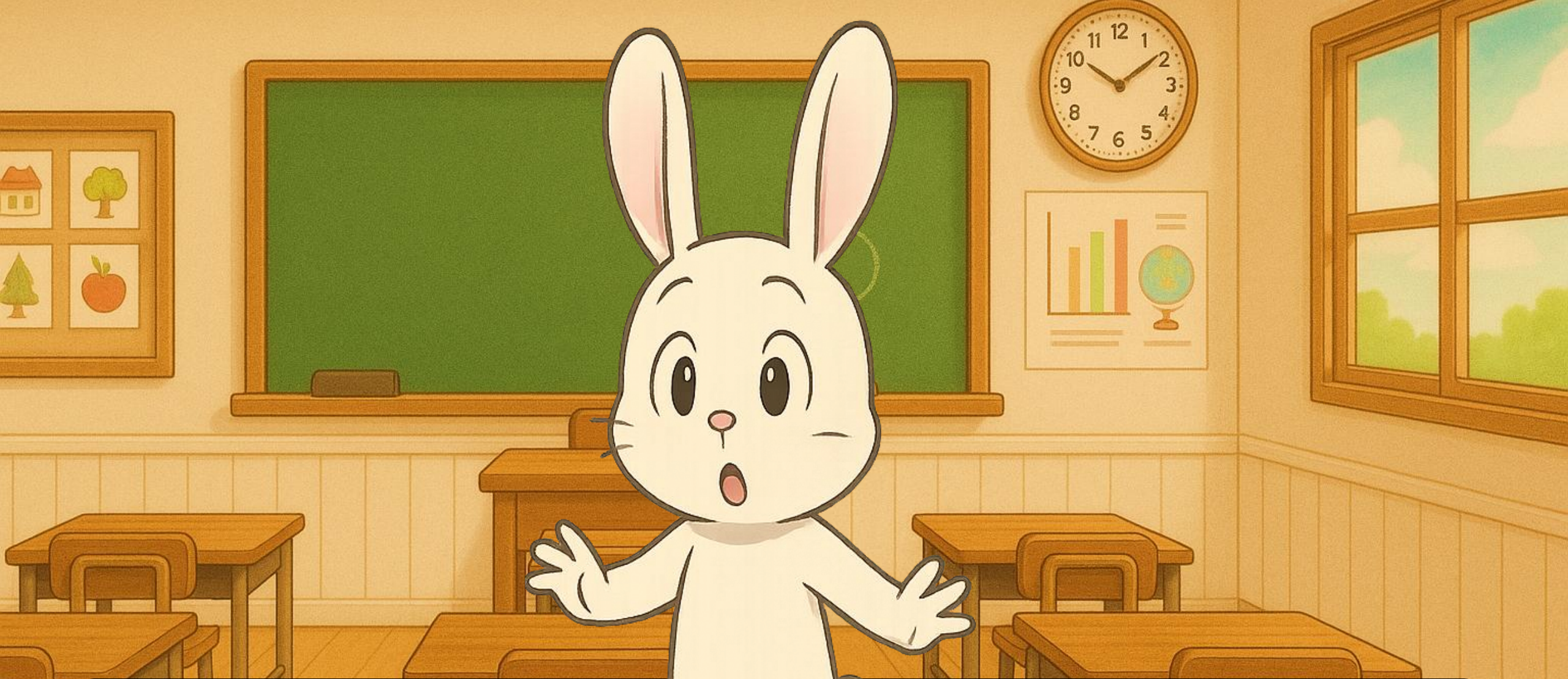
물통이었지.  
그걸 토니 손에 조용히 내밀었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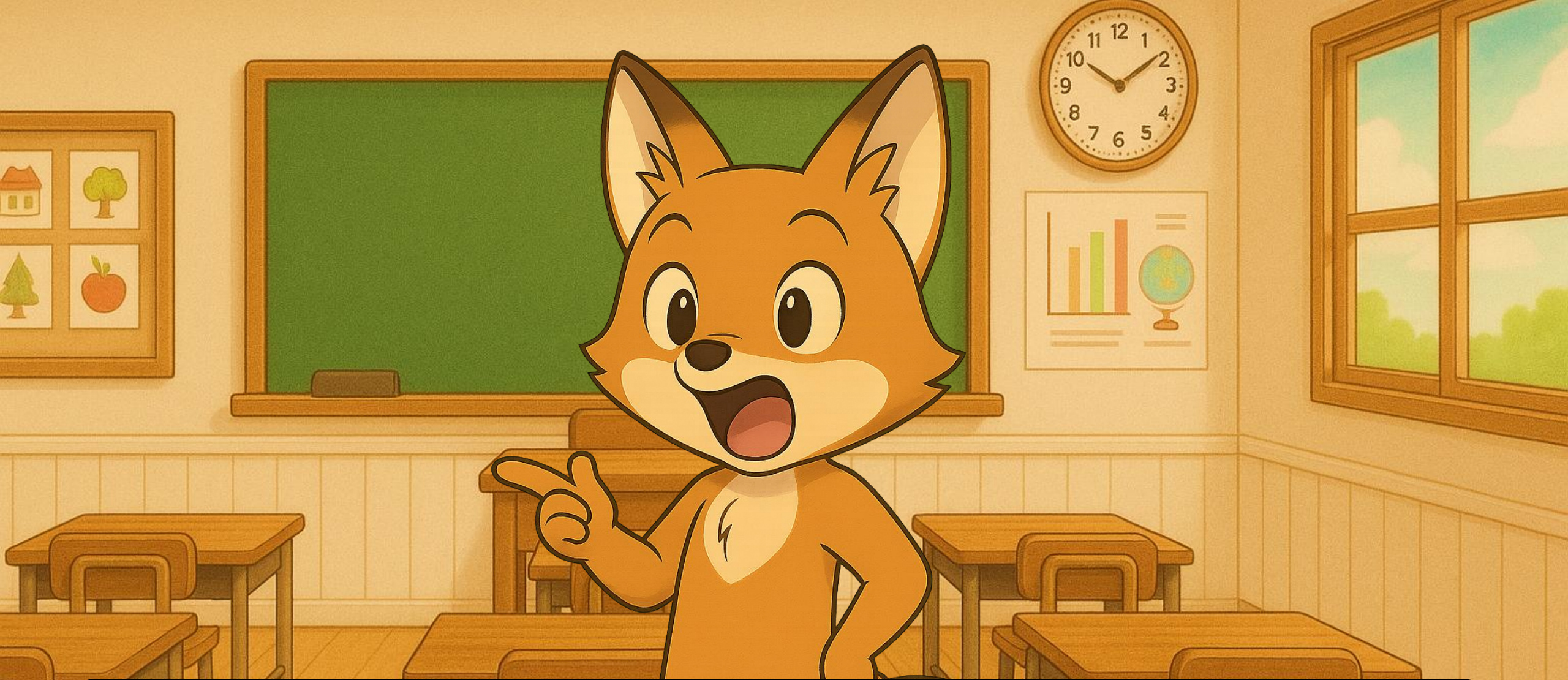
“이거... 찾던 거, 이거 맞지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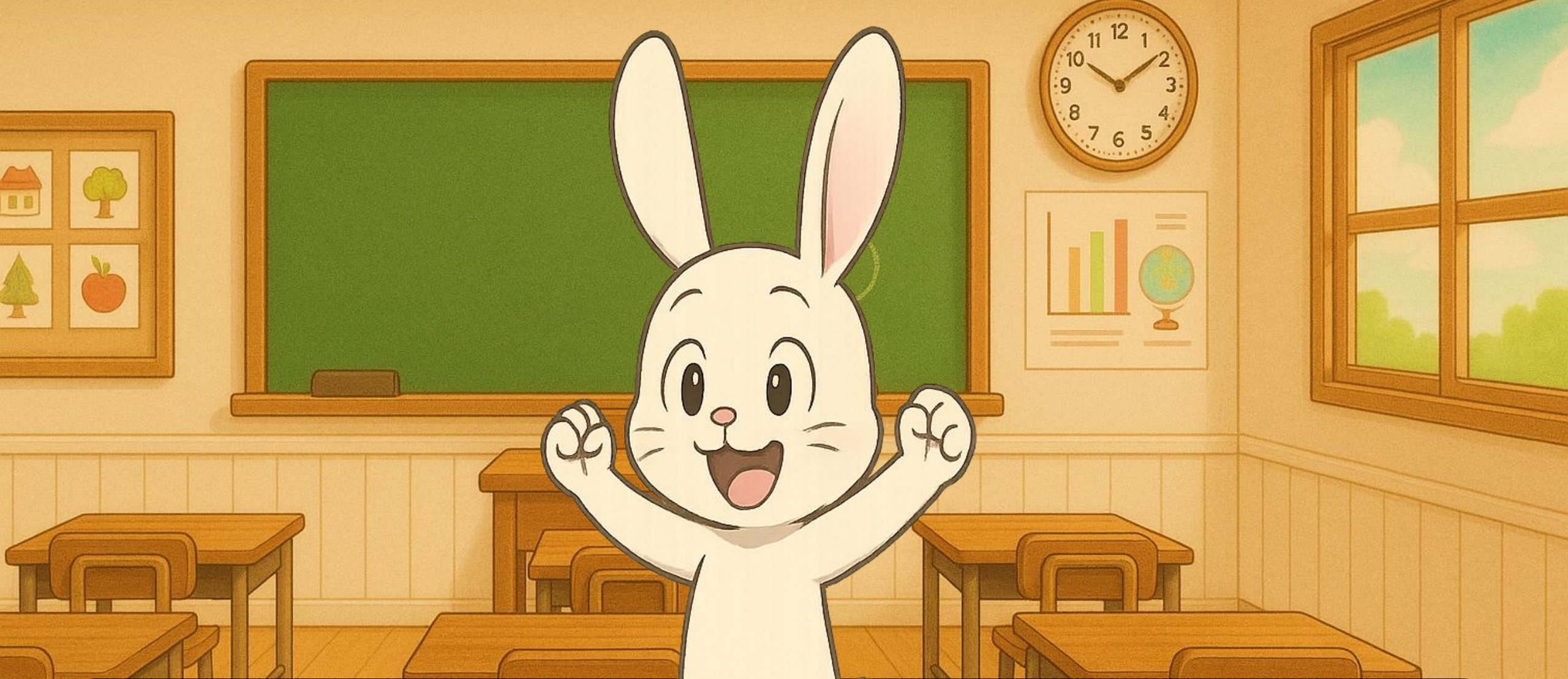
토니의 눈이 동그래지며 반짝였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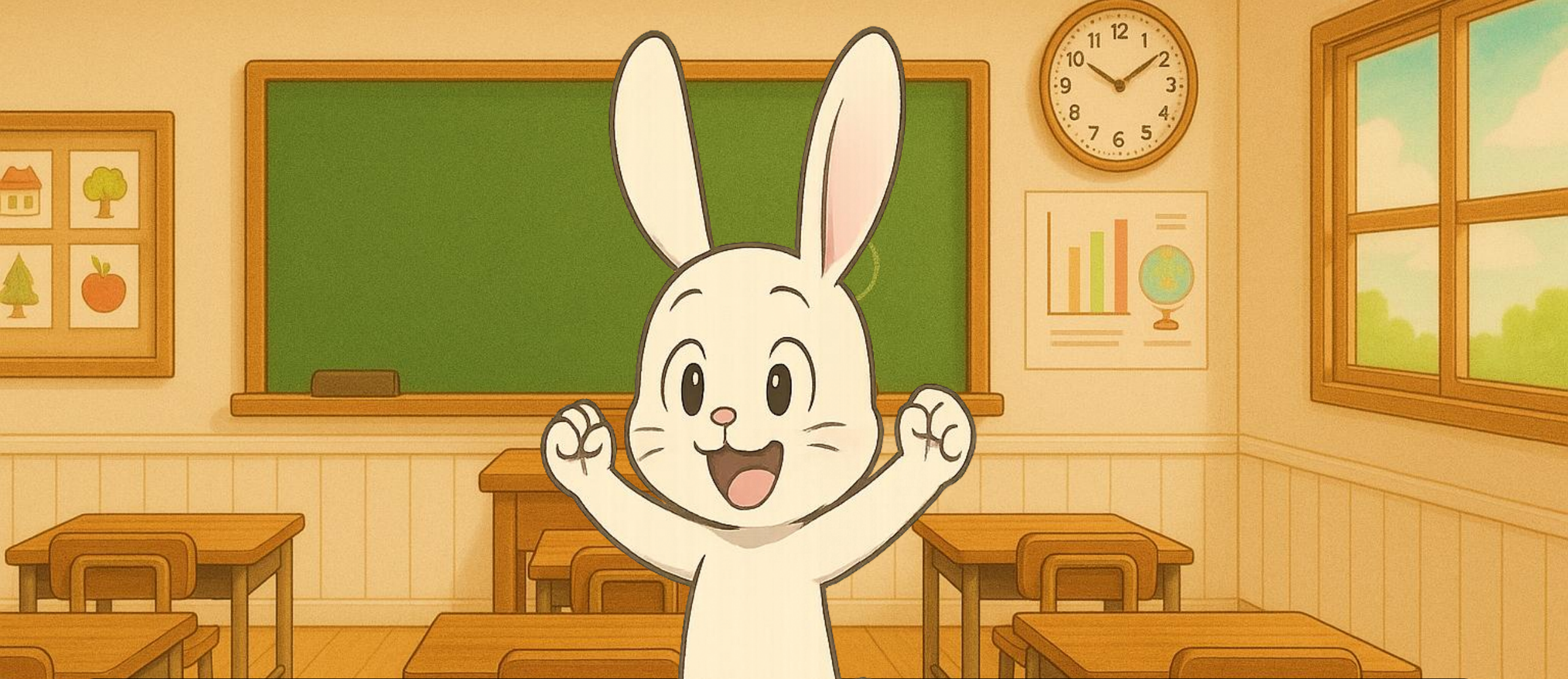
“맞아! 이거야! 대박... 어떻게 알았어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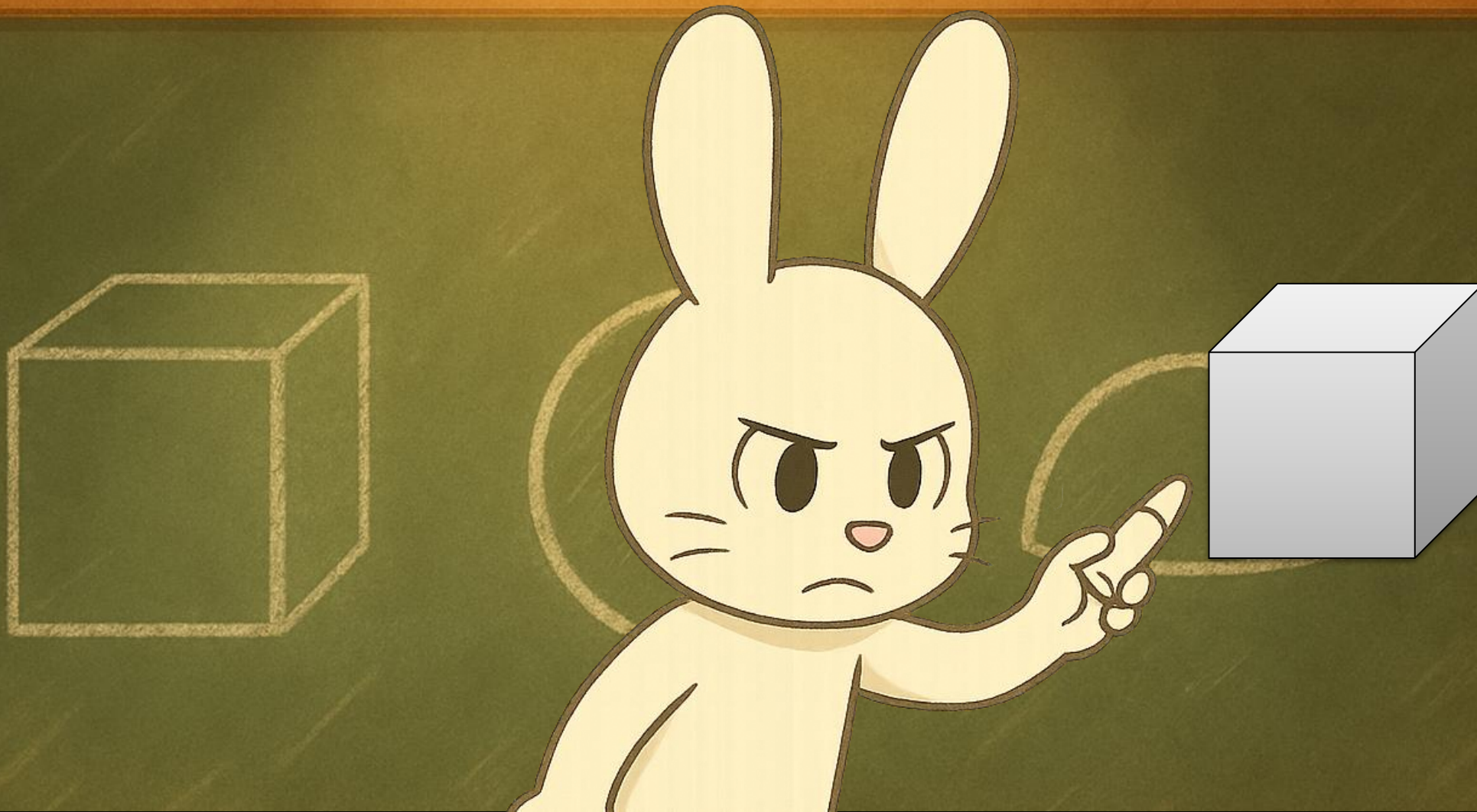
나는 눈이 동그래졌고,  
몽치랑 치치도 동시에 “우와...”를 외쳤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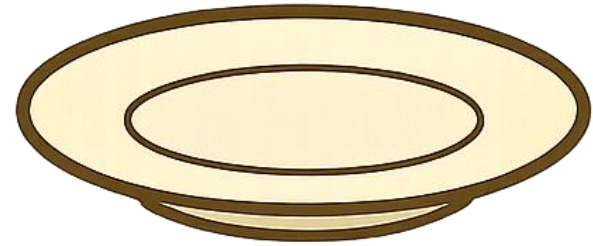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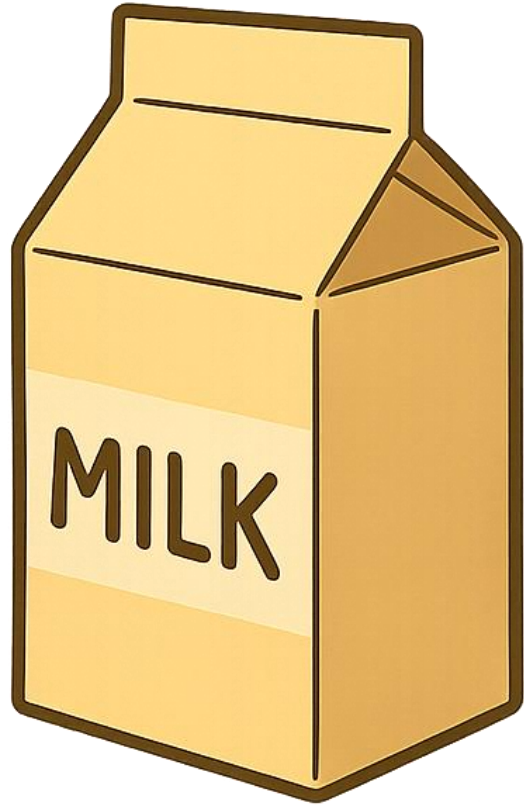
또 토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.



“그럼 이것도, 이것도, 이것도 찾아줘!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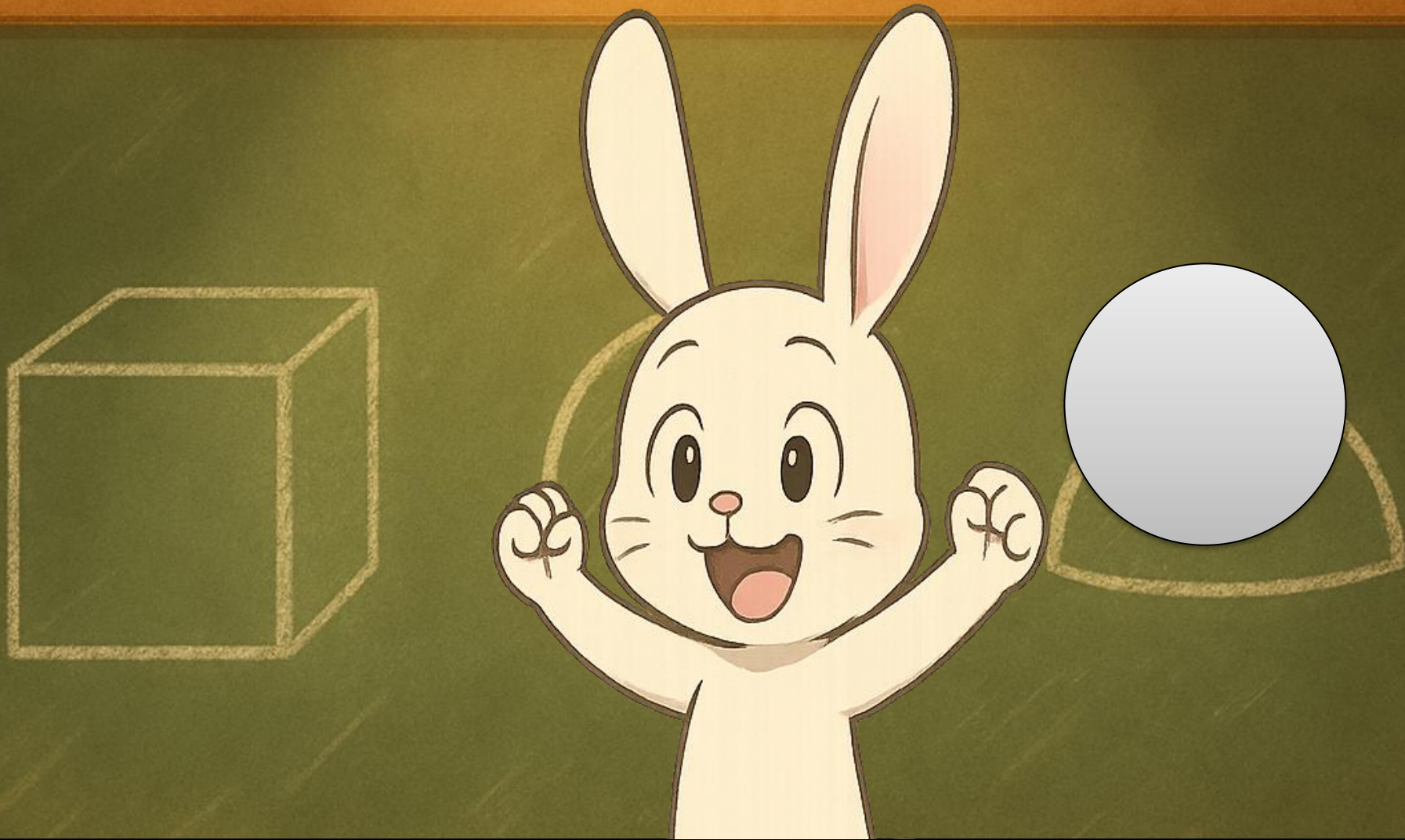


또다시 칠판에 연달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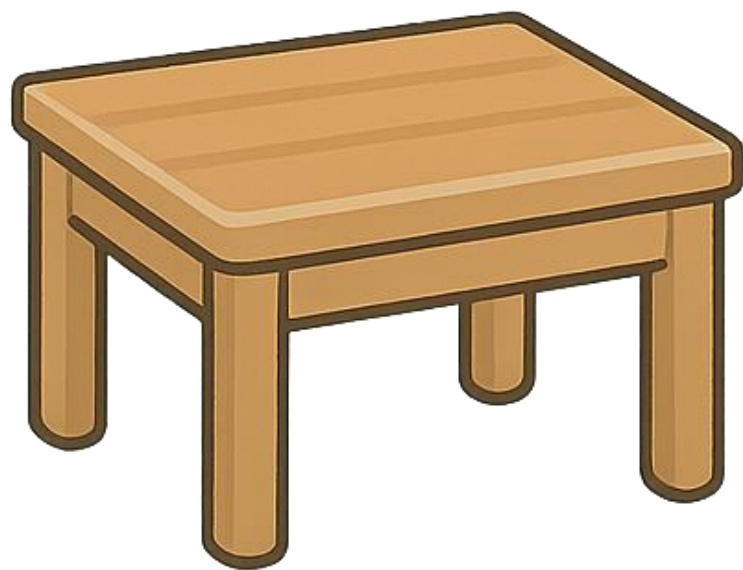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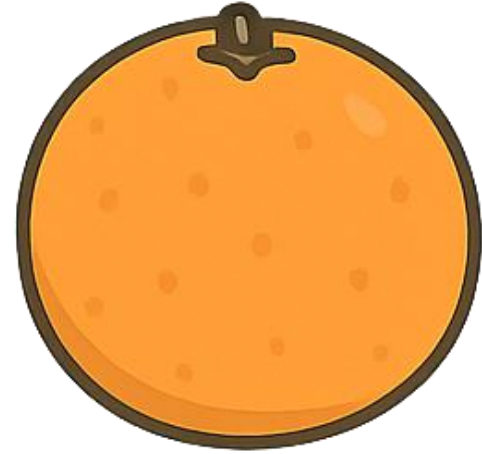


“이거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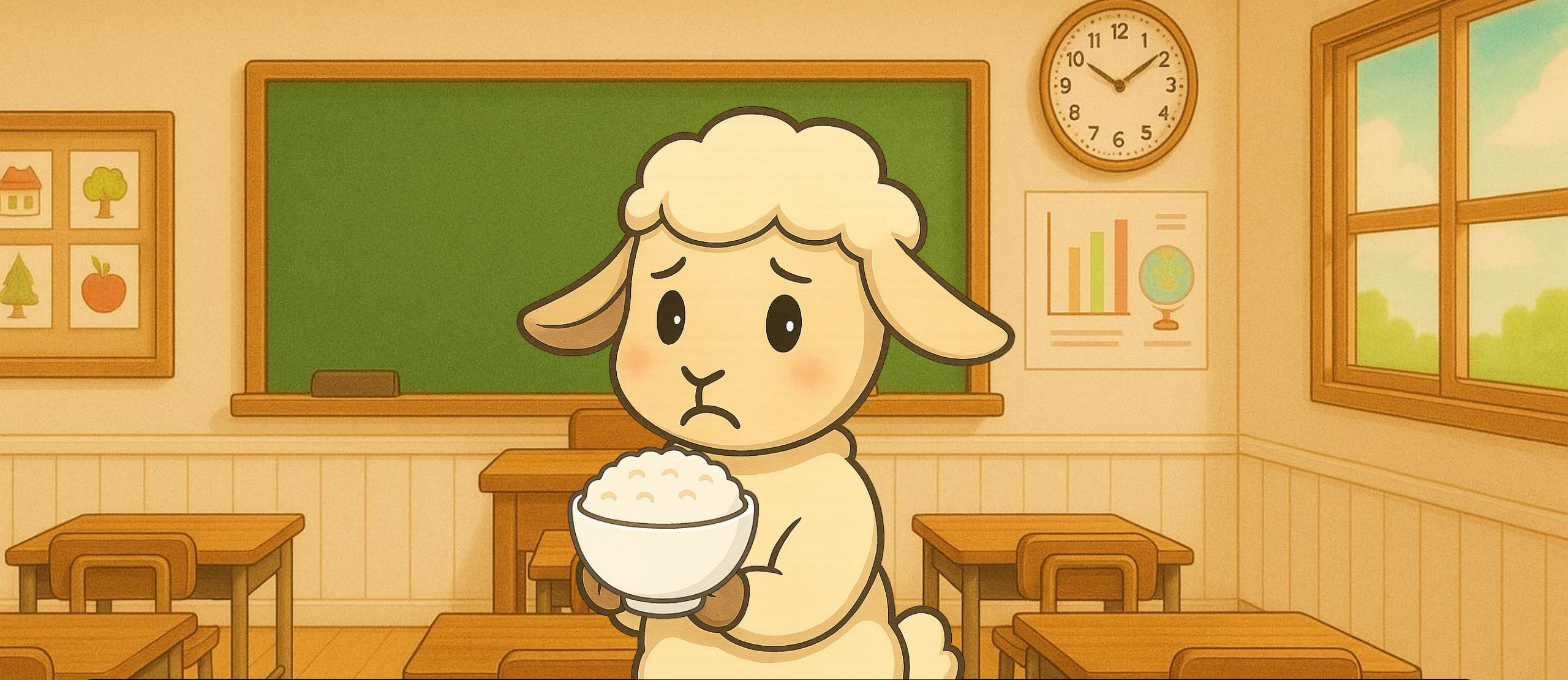


“진짜, 마지막이야! 이번엔 이거!”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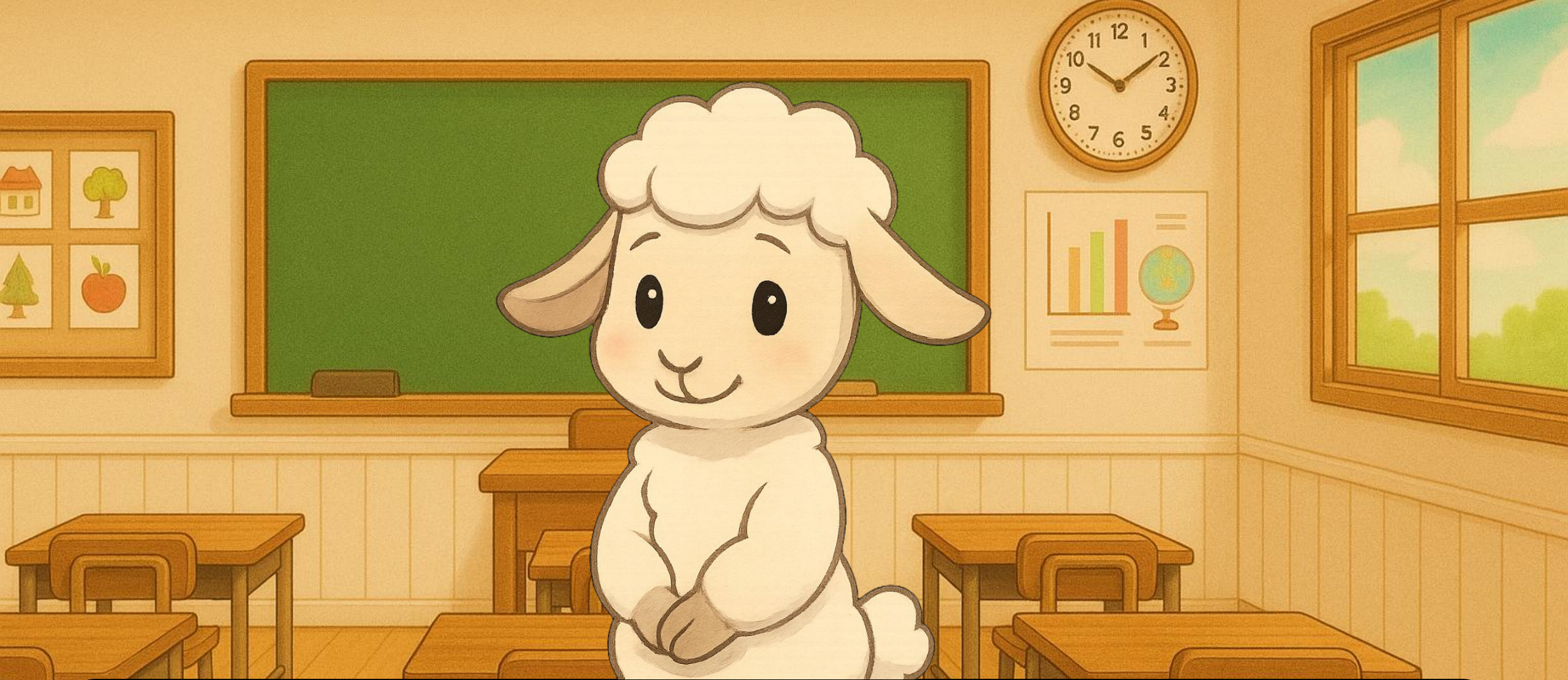
“음..이거.”



“어? 근데 이것도 동그란데 ● 니야?”



“● 공처럼 둥그롭지만, 반만 있잖아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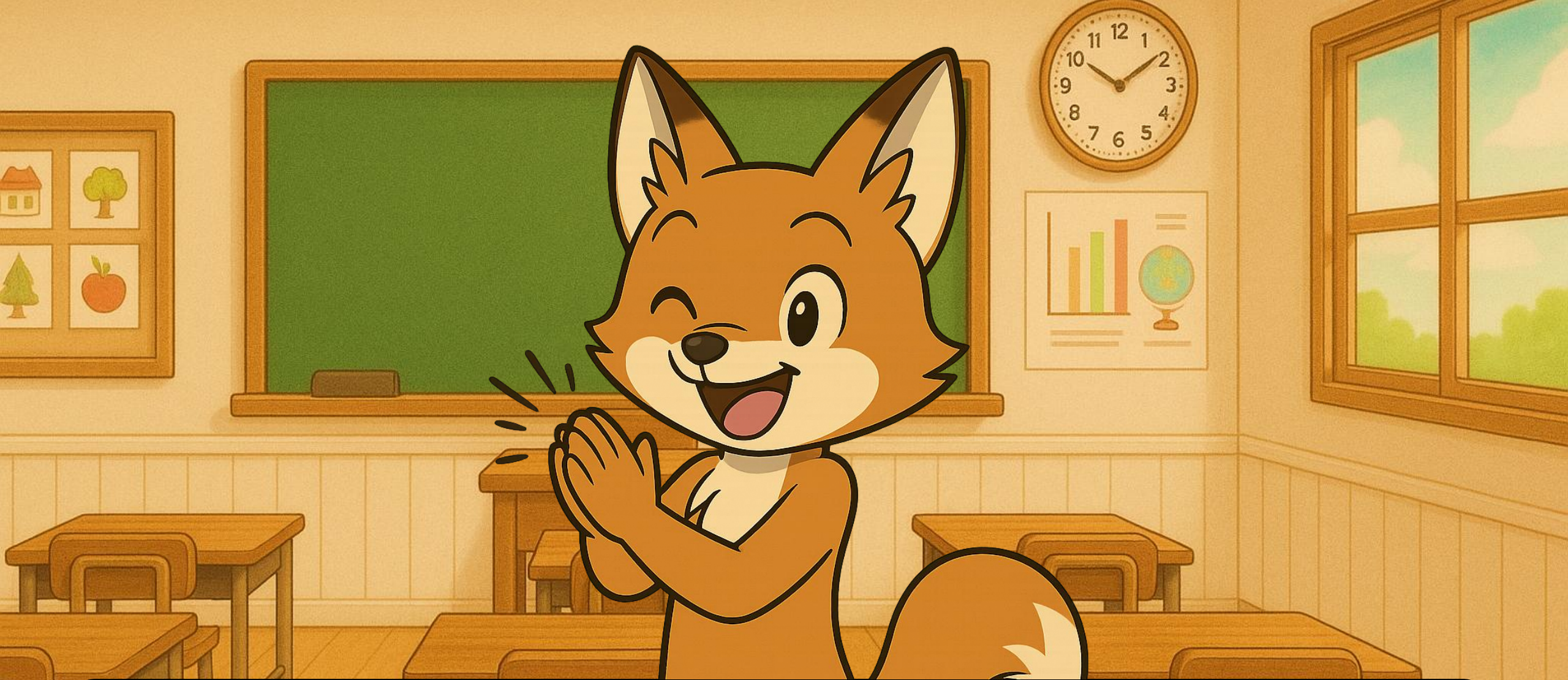
“우와, 설이 진짜 대단해. 정말 똑똑하다!”



“그러게, 꼭 탐정같다!”



“멋있다!”



우리는 설이에게 박수를 쳐줬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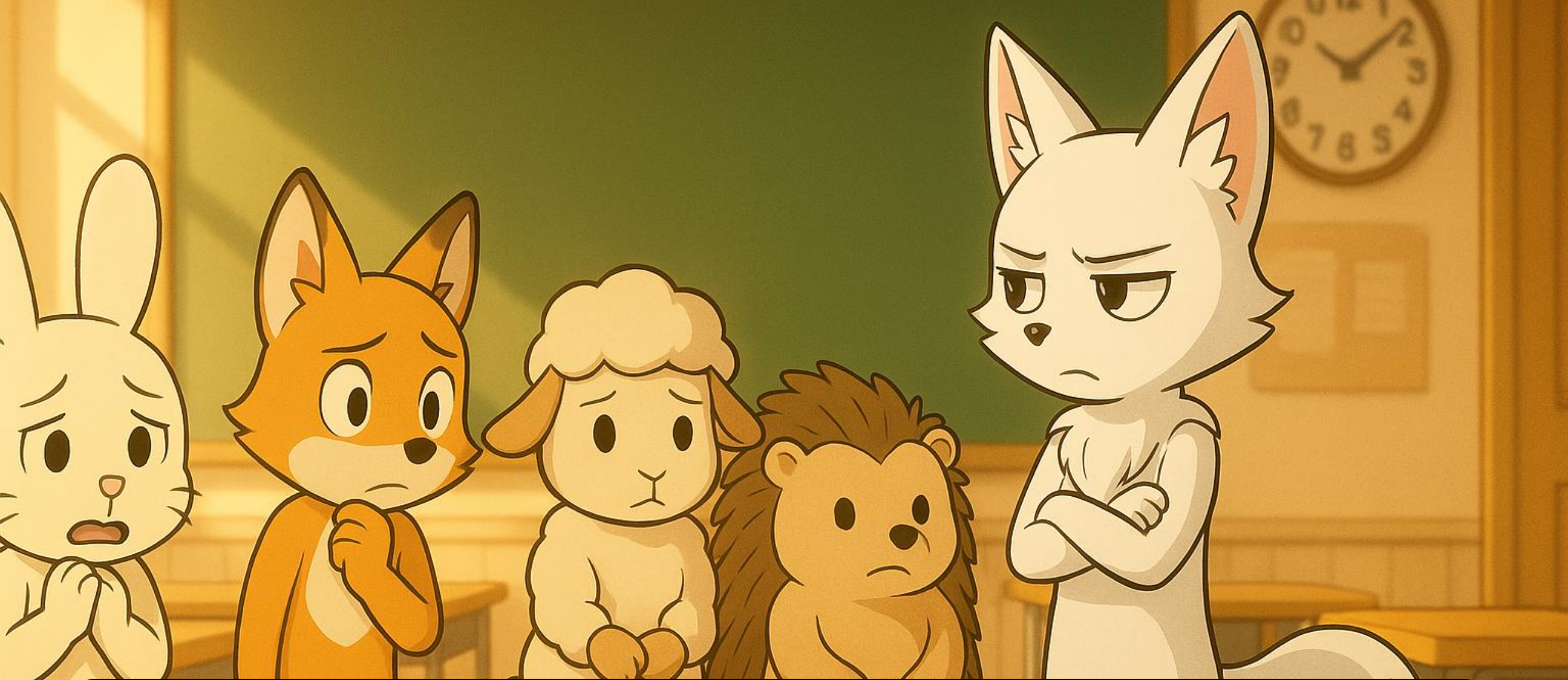
그런데, 그때 설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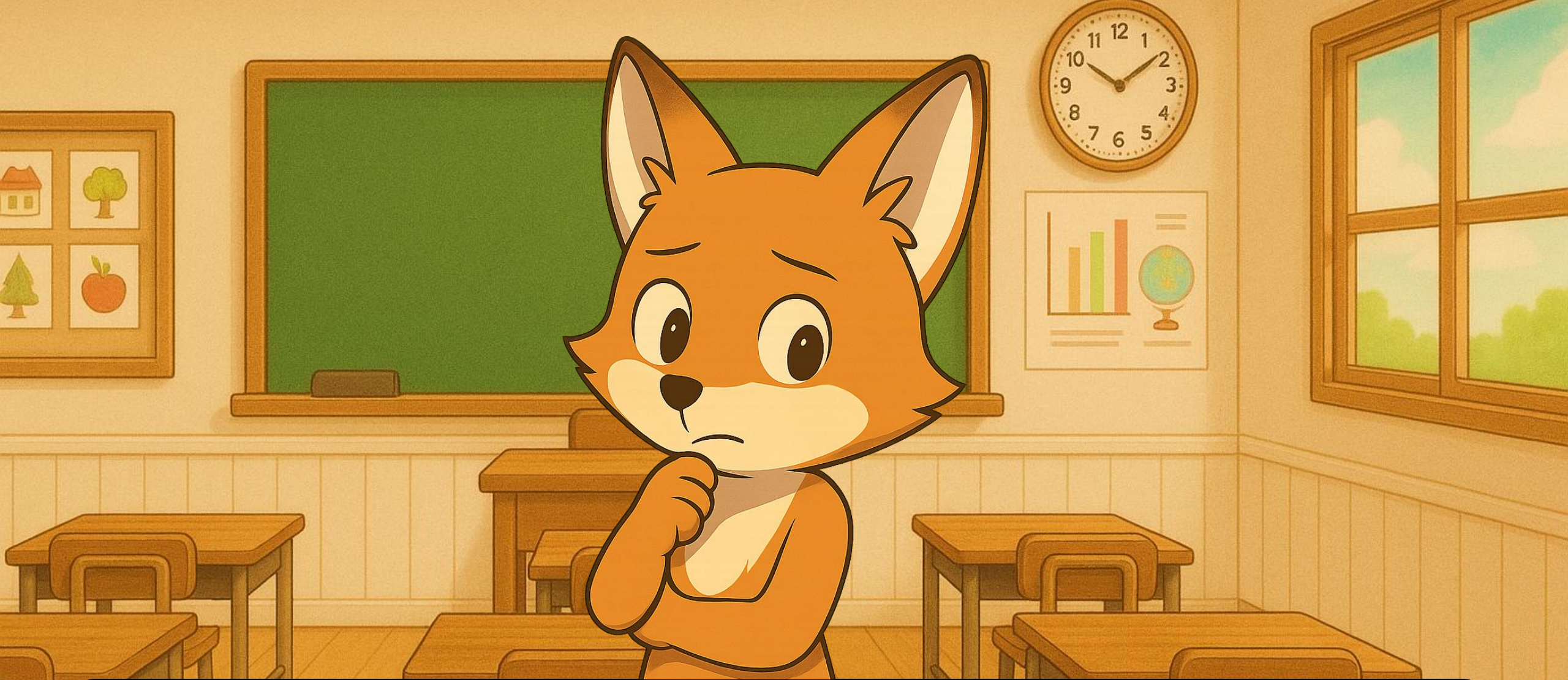
“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다니..  
조심 좀 해야겠다, 너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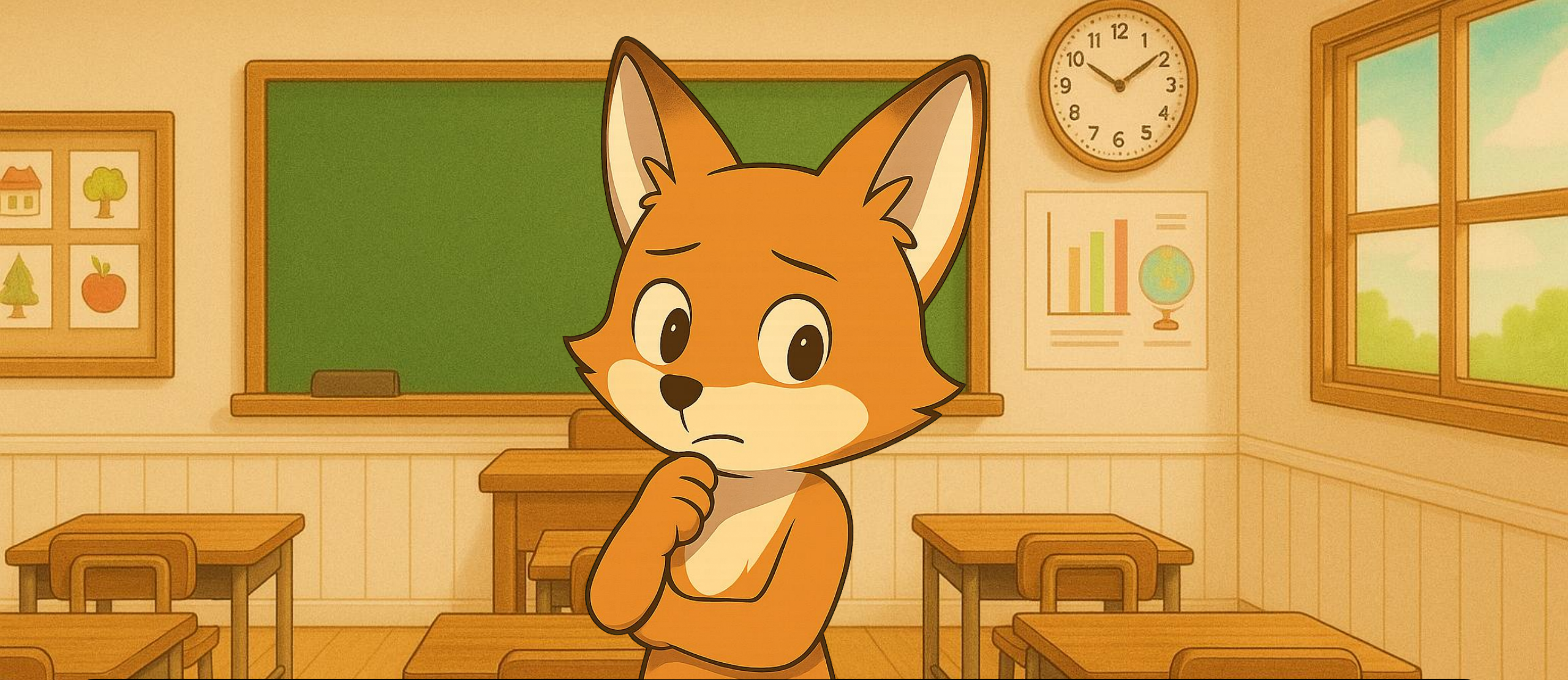
“으...응...미안해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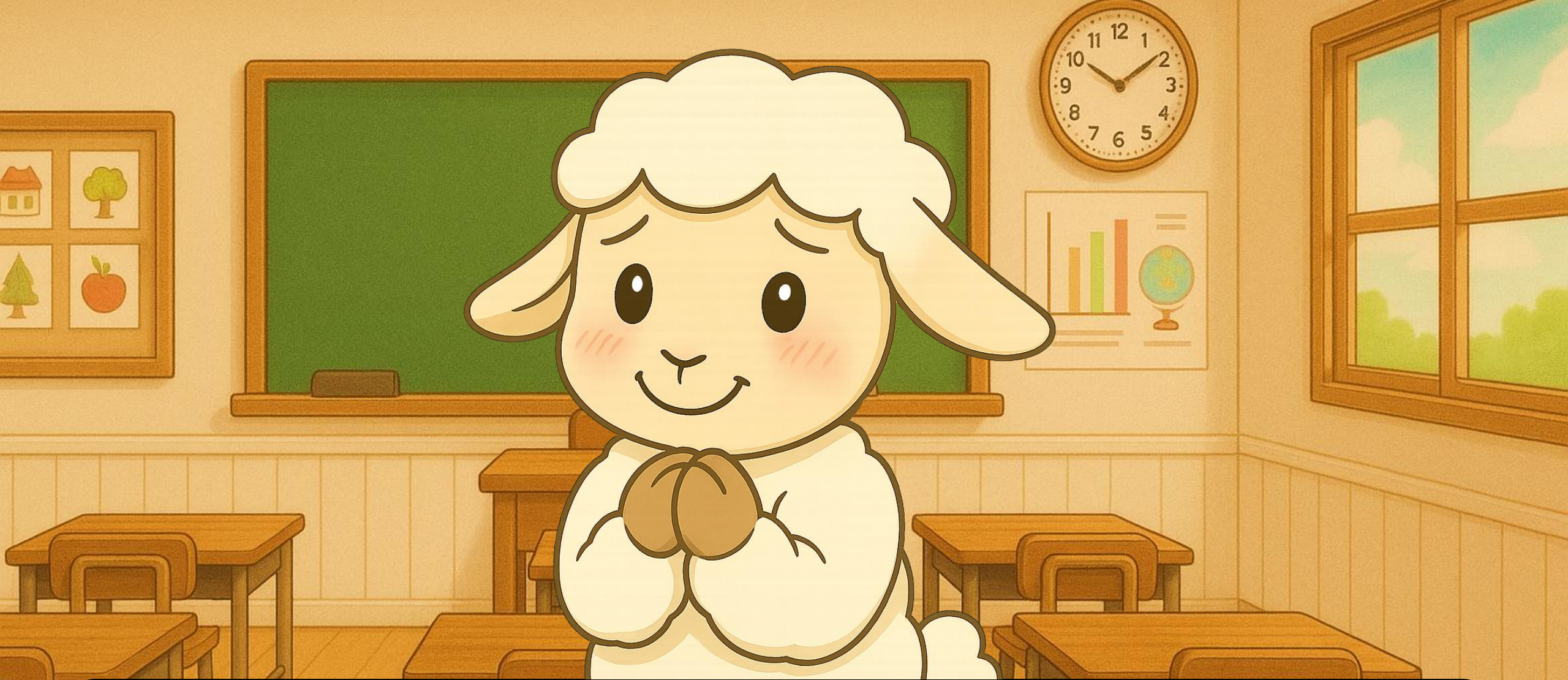
쌀쌀맞은 설이의 표정과 말투에  
우리는 순간 얼어버렸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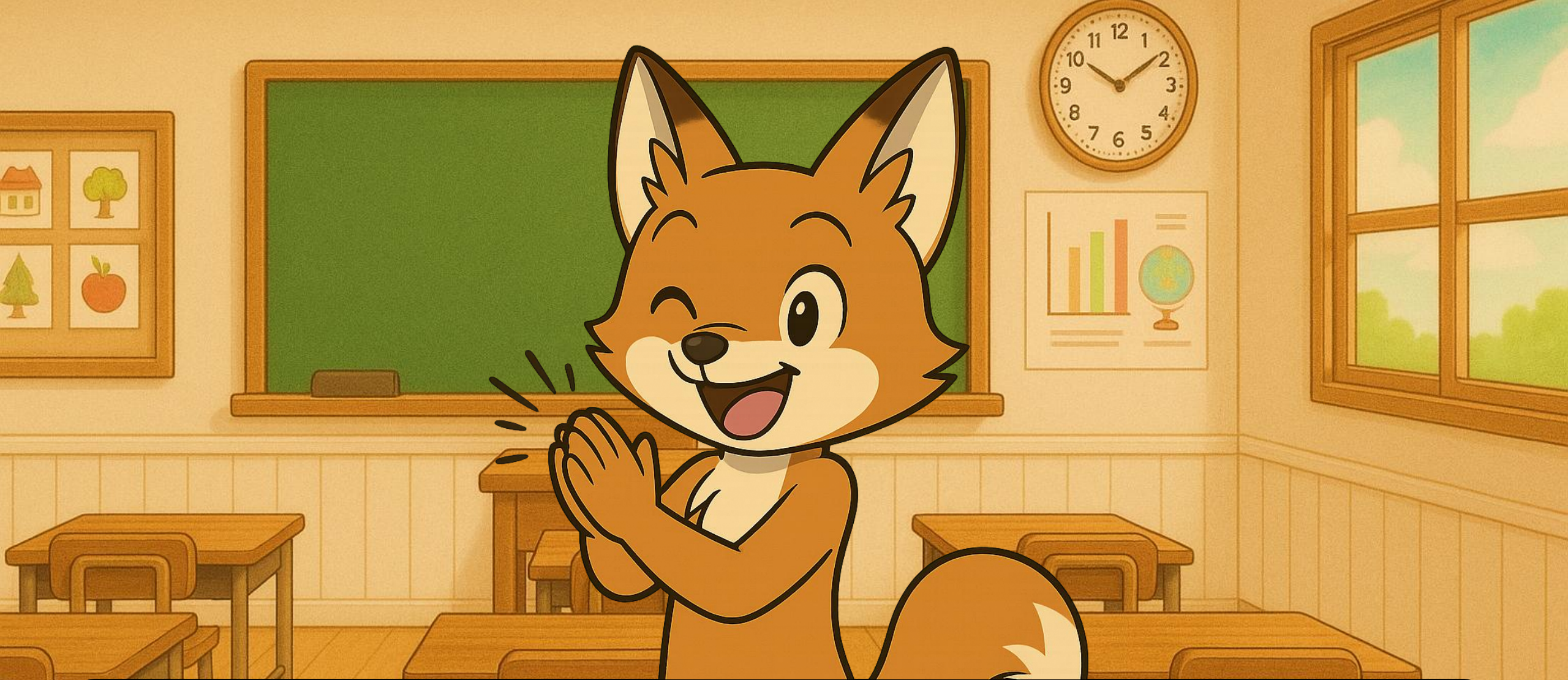
설이의 말에 순간 조용해졌지만...  
나는 그 애가 나쁜 애는 아닐 것 같단 생각이 들었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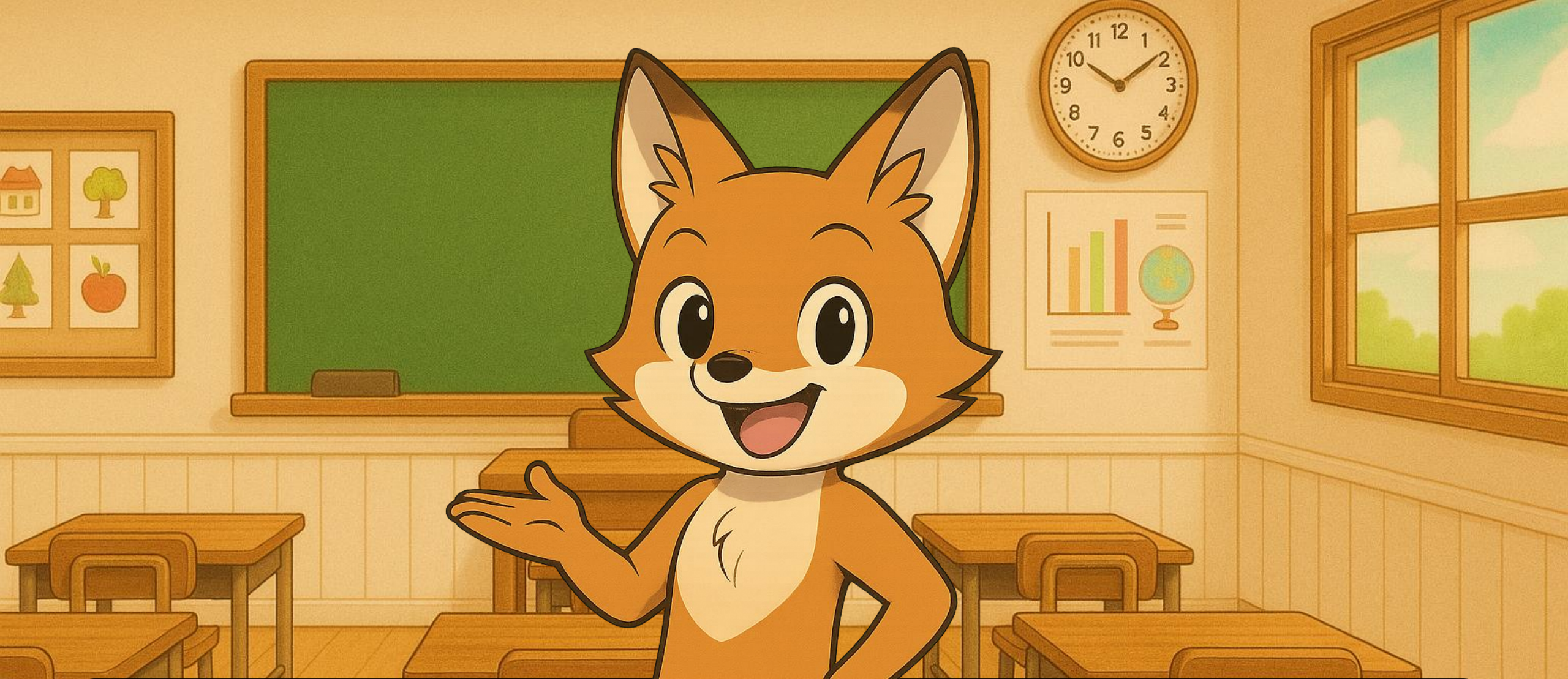
처음엔 그 말투에 살짝 벅질 뻔했지만,  
사실은 좀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해.



“그..그런데 아까 설이가 물건 찾던게  
진짜 탐정 같더라...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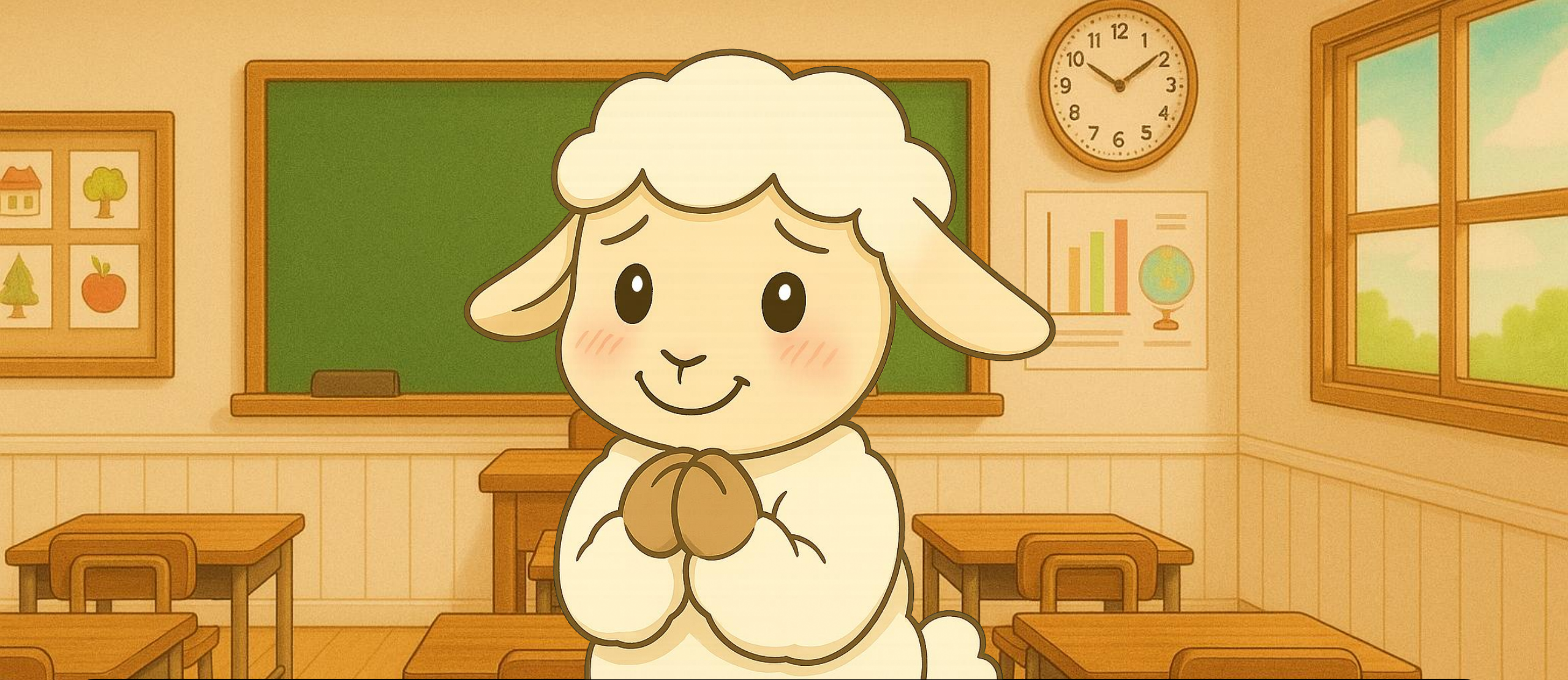
뭉치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풀렸어. 고마워, 뭉치야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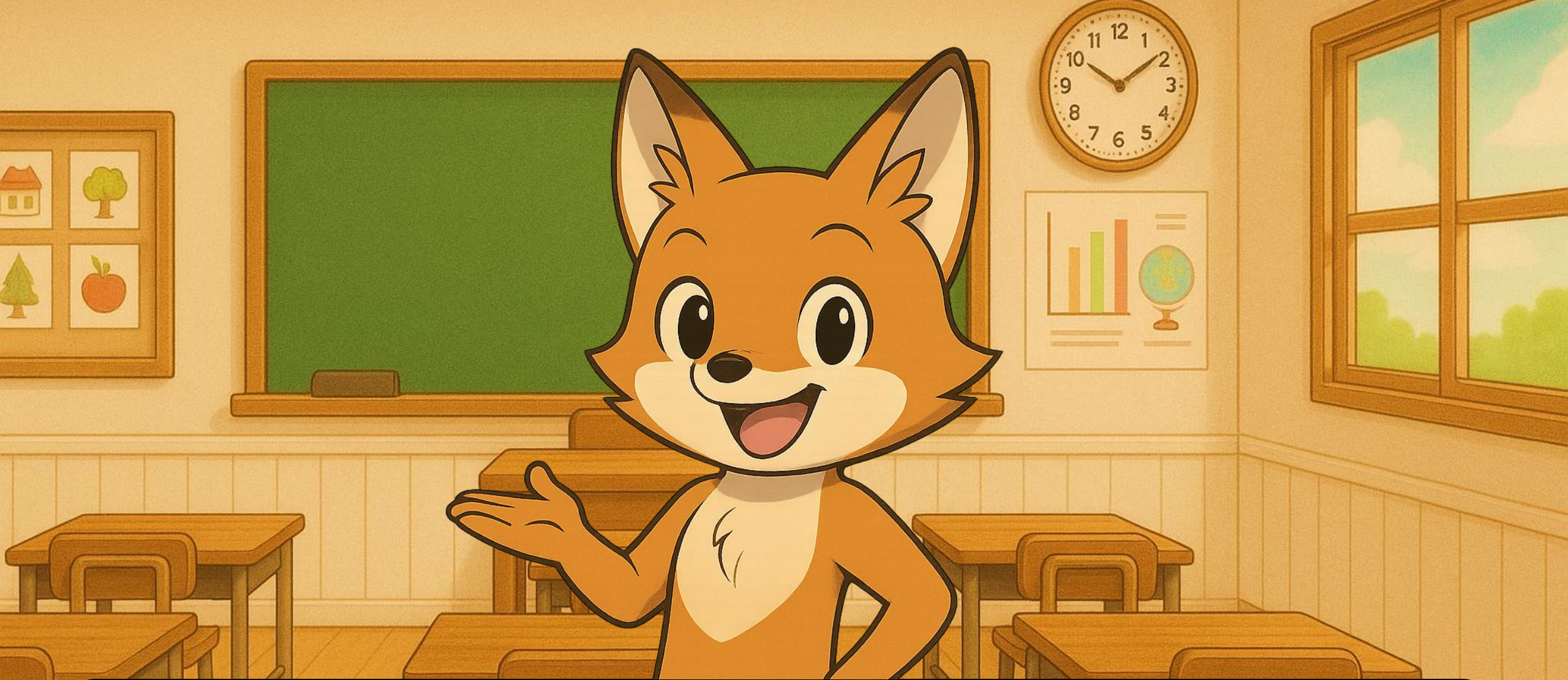
“그럼 교실 안에서  이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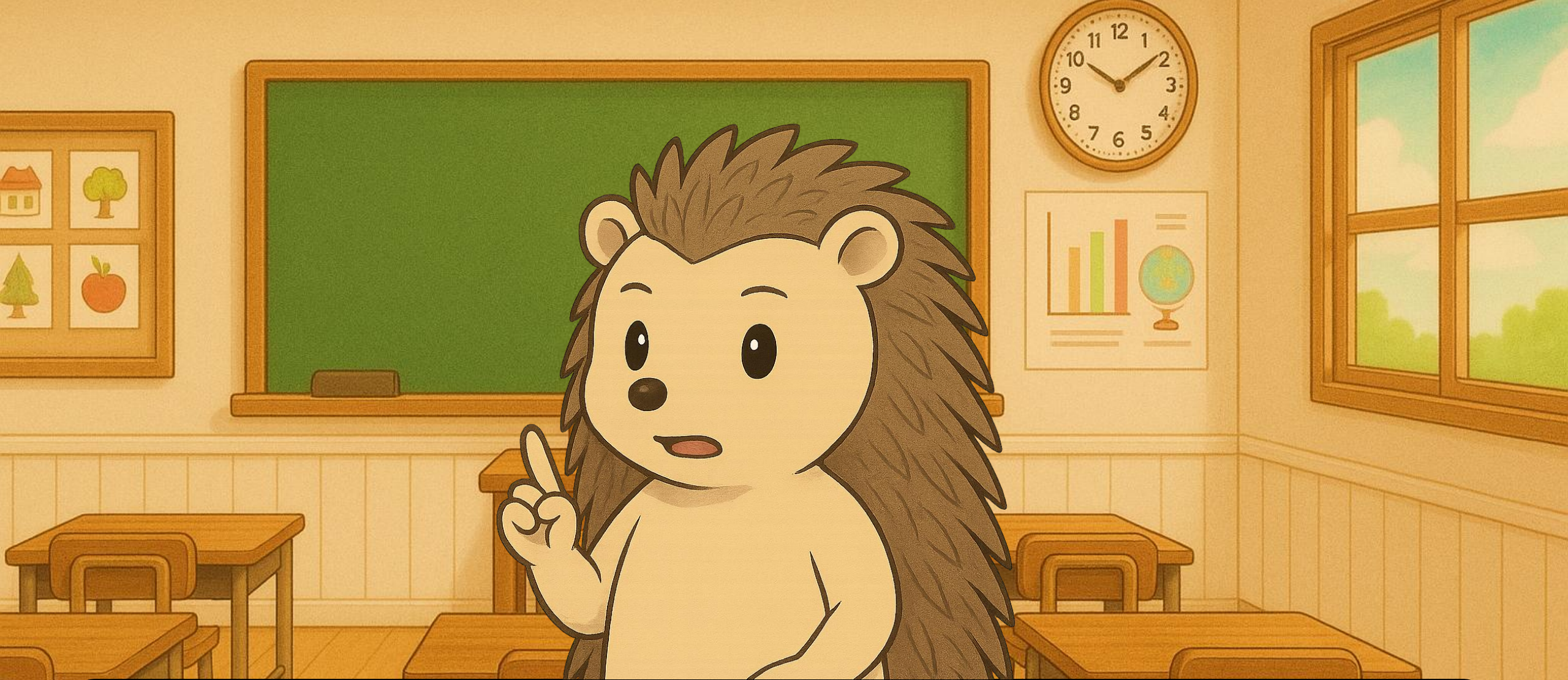
“● 이랑 ■ 은  
찾아보자!”



“오, 재밌겠다~!”



“어떤 것들이 비슷한 모양인지 찾아보면  
더 재밌을 것 같아!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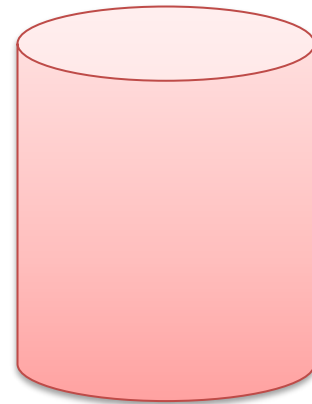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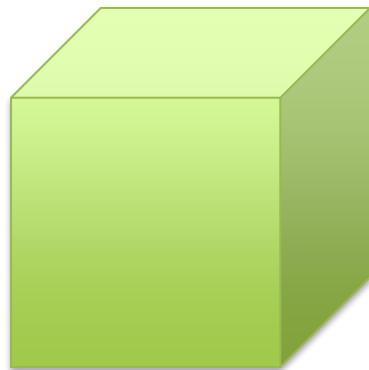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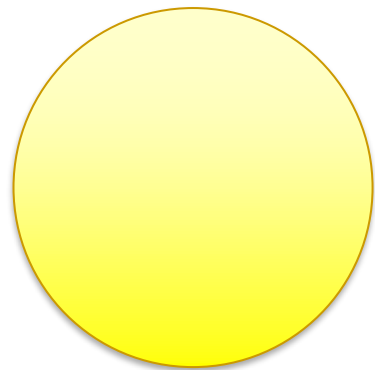


“맞아! 그리고 눈속임 조심해야 해~  
앞에서 보면 동그란데 사실은 납작한 것도 있으니까!”



우리는 교실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했어.

여러분도 교실에서  
다음 모양과 비슷한 물건들을 찾아보세요.





나는 스노우볼을 들고



뭉치는 도시락통,



치치는 둥근 막대기를 가져왔어.



“이건  지? 딱  같아.”



“애는 둥글지만 바닥이 평평해.”



나는 책상 위에 내 물건을 내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어. 걸으론 ● 처럼  
생겼는데... 굴리면 뭔가 이상했거든.



“음... 이걸 좀 애매한데... 설이, 네가 한번 봐줄래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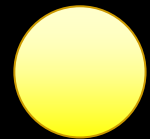
설이는 조용히 다가오더니,  
내가 내민 물건을 손으로 굴러보고 툭툭 두드려 봤어



그리고는 말했지.



“전체적으로 보면 둥글어도, 밀이 평평해서 안 굴러.



● 모양이랑은 달라.”



“아하! 그래서 뭔가 이상했구나.  
이유를 알게 되니까 속이 시원하다, 설이는 참 대단해!”



“벼..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걸로 칭찬 하지마.  
부담스러워!”



칭찬이 싫다니... 설이는 내가 싫은 걸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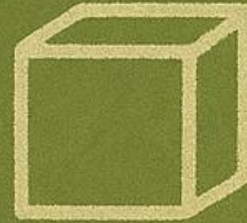
cylind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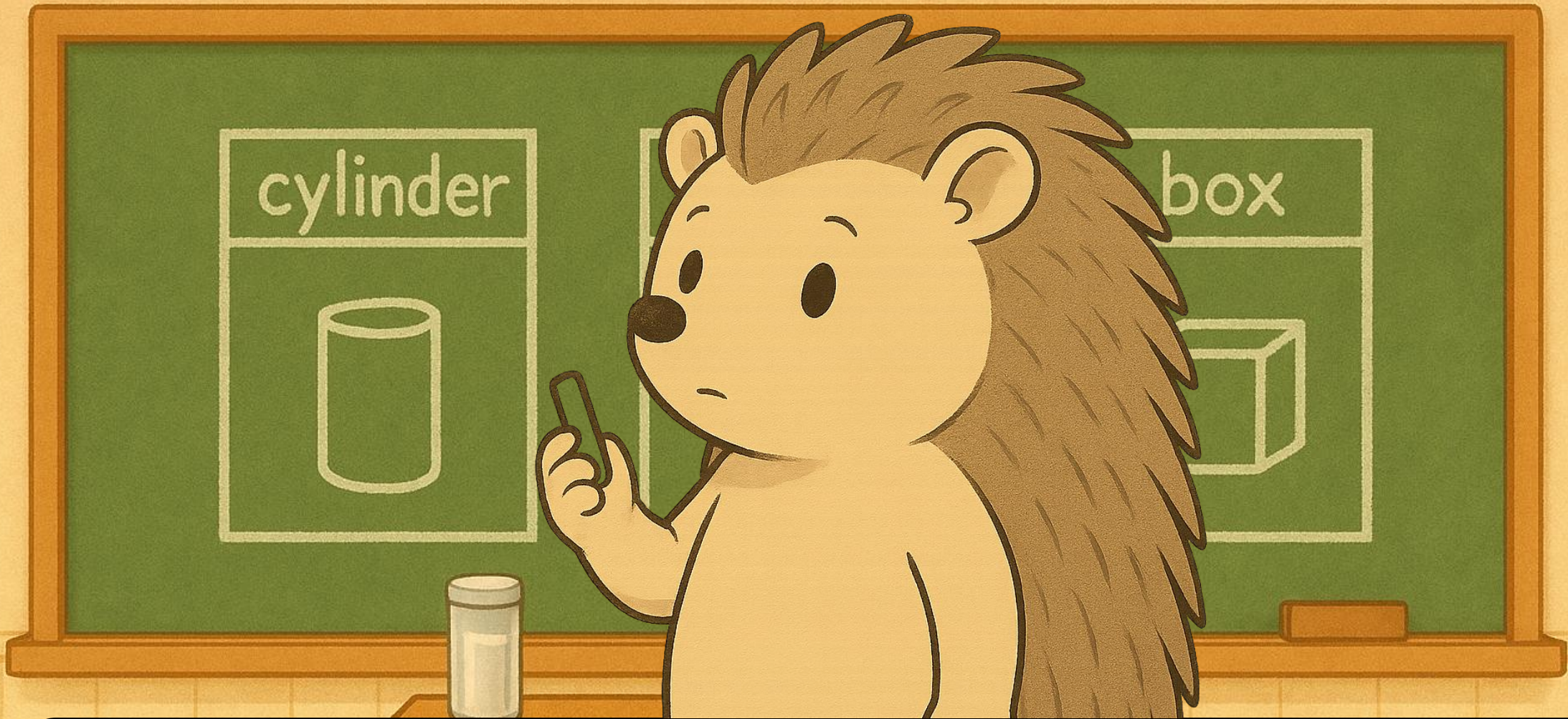
sphe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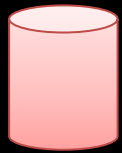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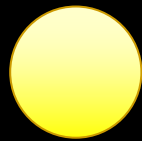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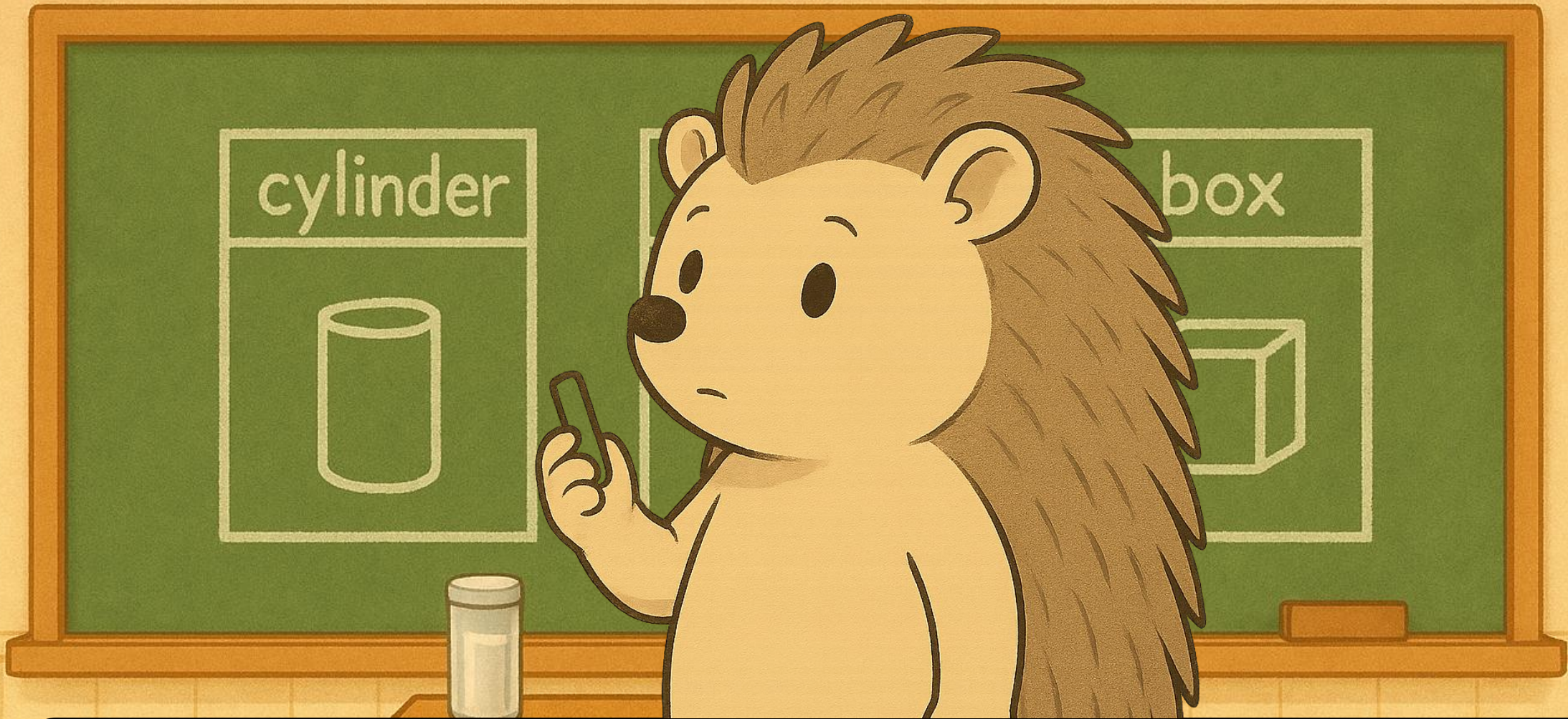
box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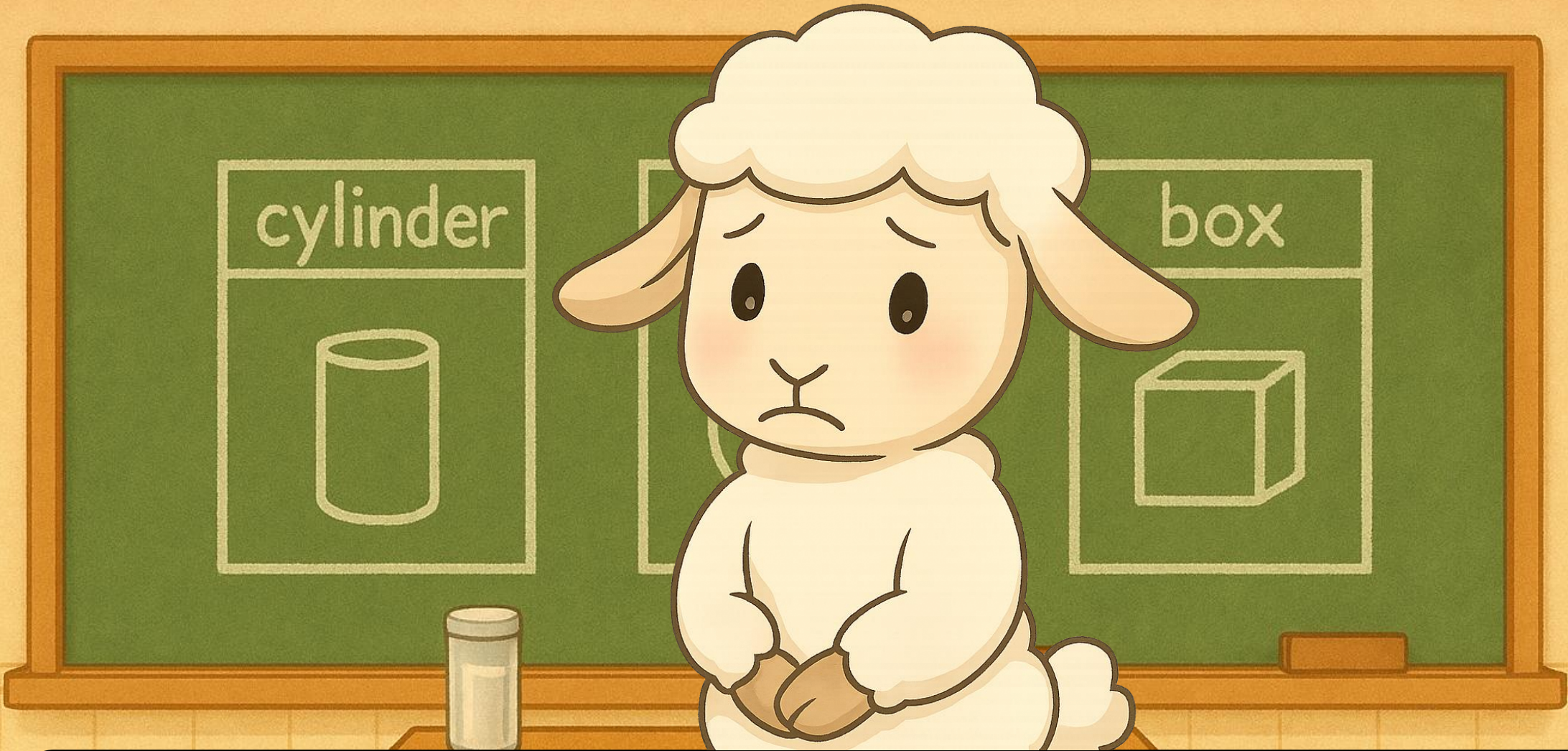
우리는 모든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왔어.  
치치가 말한 대로 비슷한 물건끼리 모아보기로 했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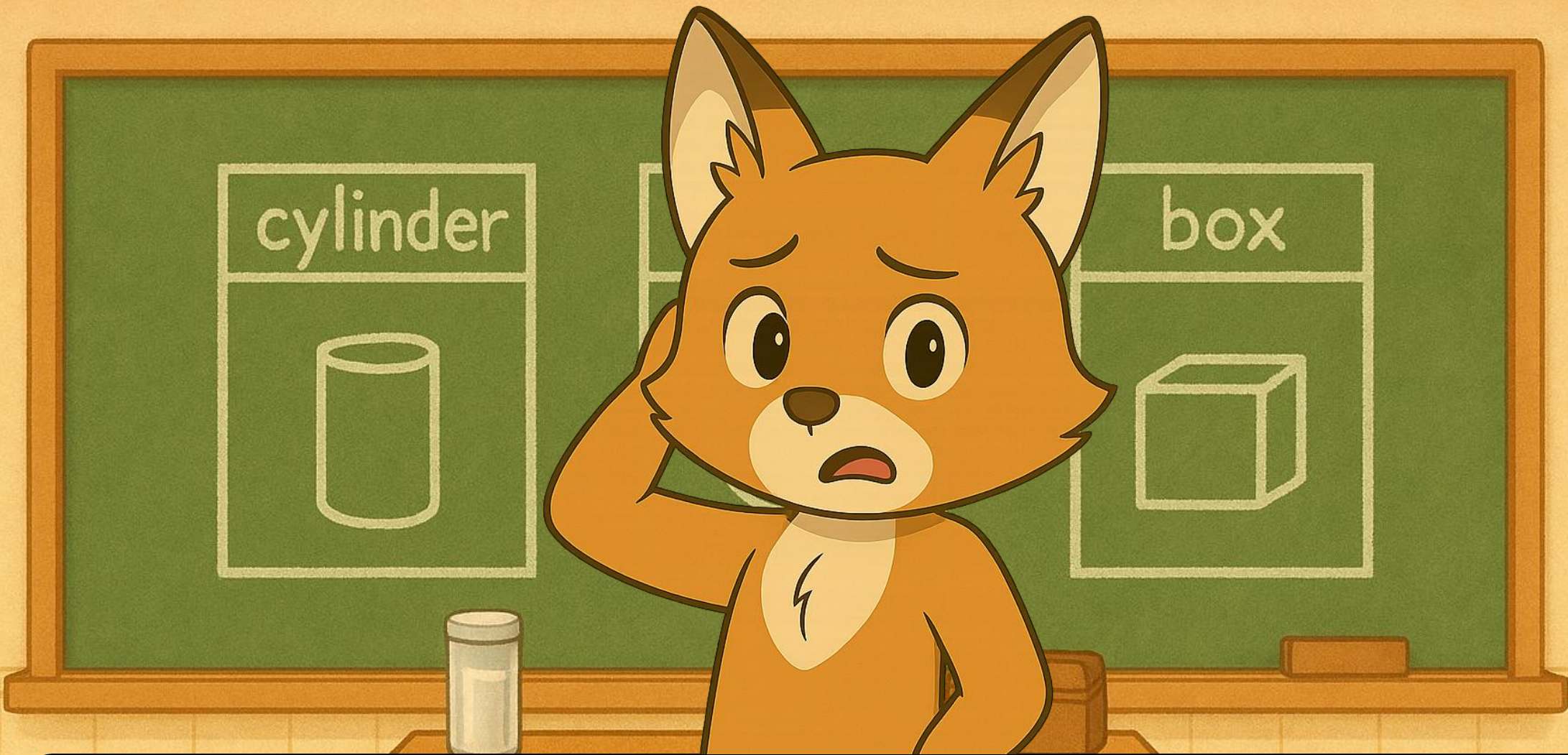
칠판에 분필로 써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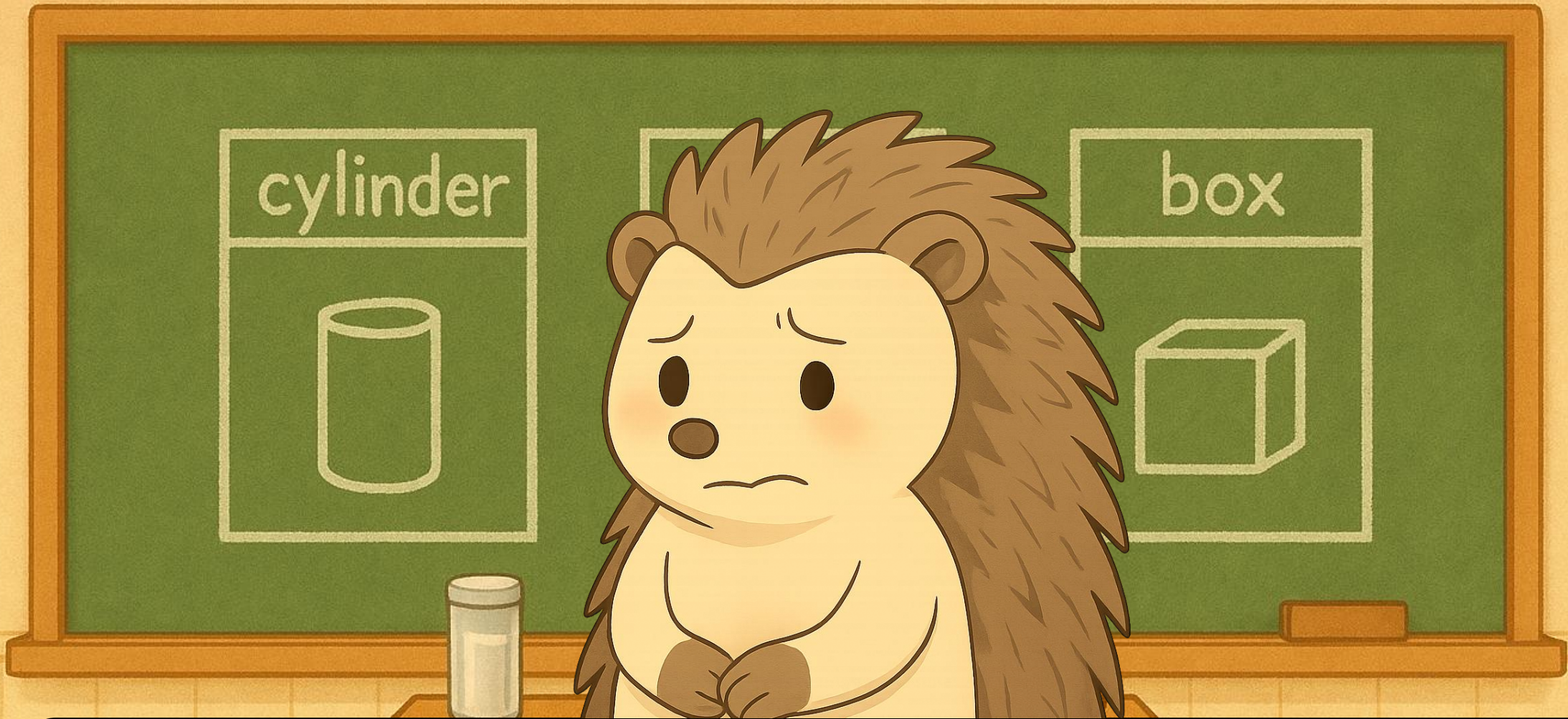
코너를 만들었어.



“이건 좀 애매한데... 위는 동그랗고,  
옆은 네모 같아. 어디다 두지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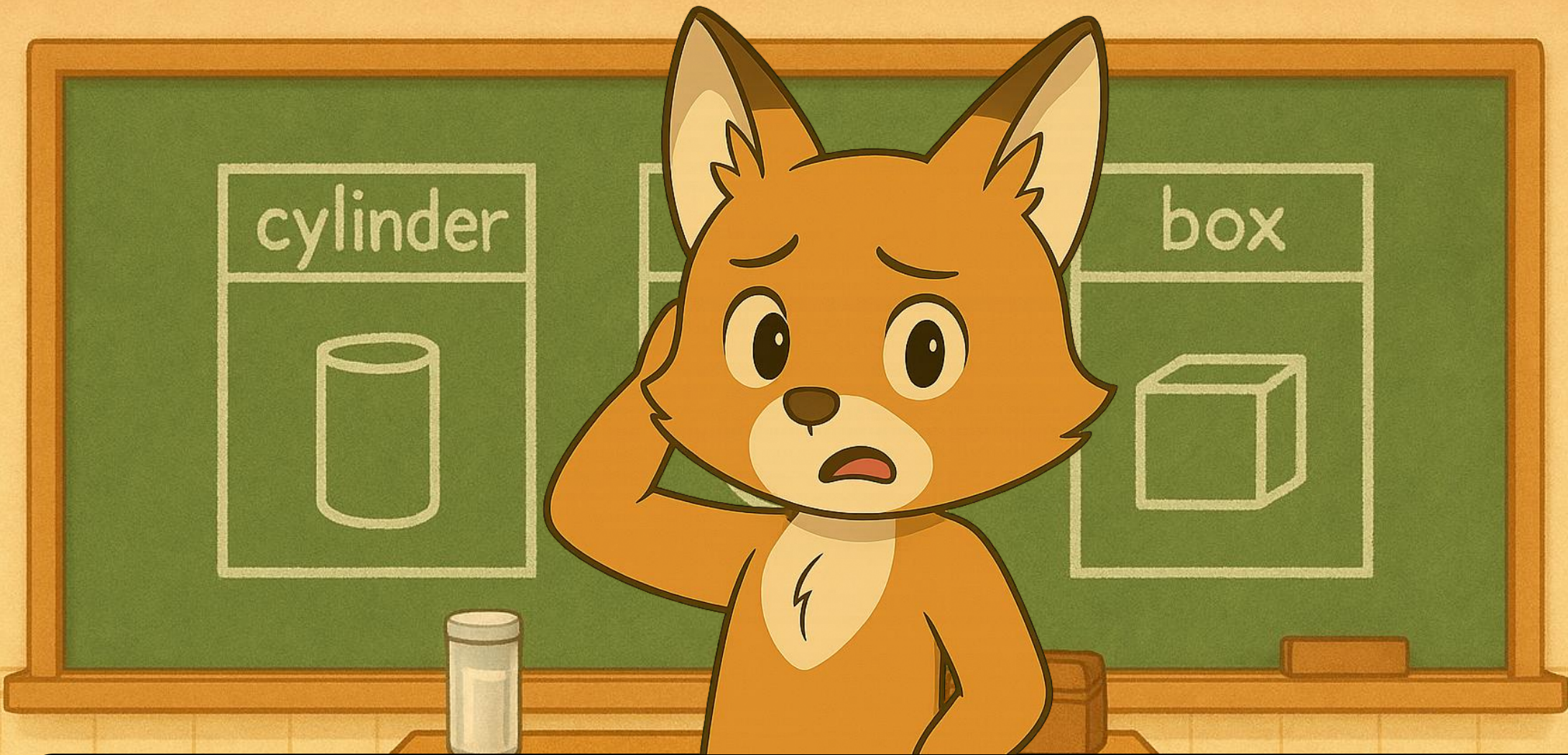
“음... 굴러가면 ●인가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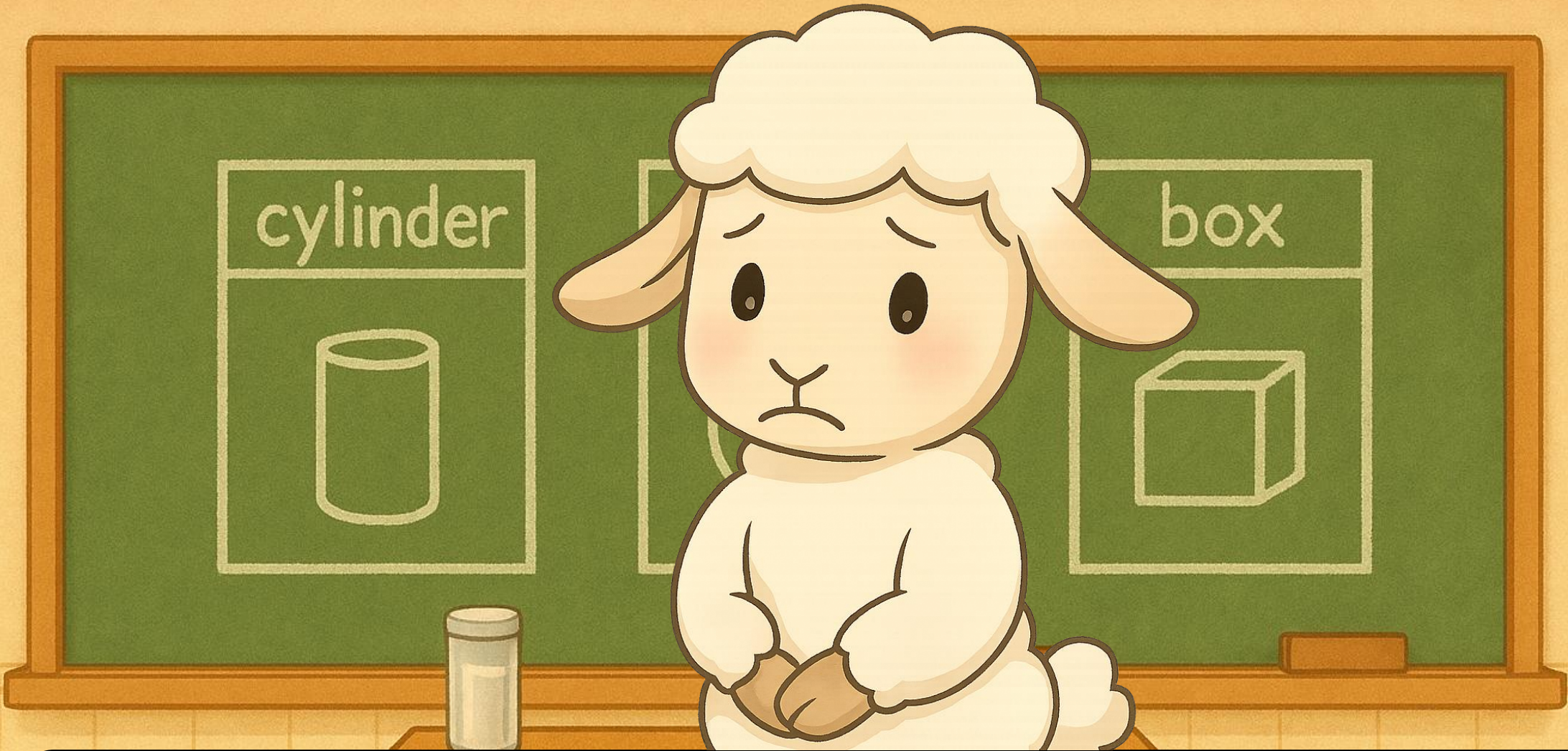
“아니, 그럼 바퀴도●이야? 아니잖아~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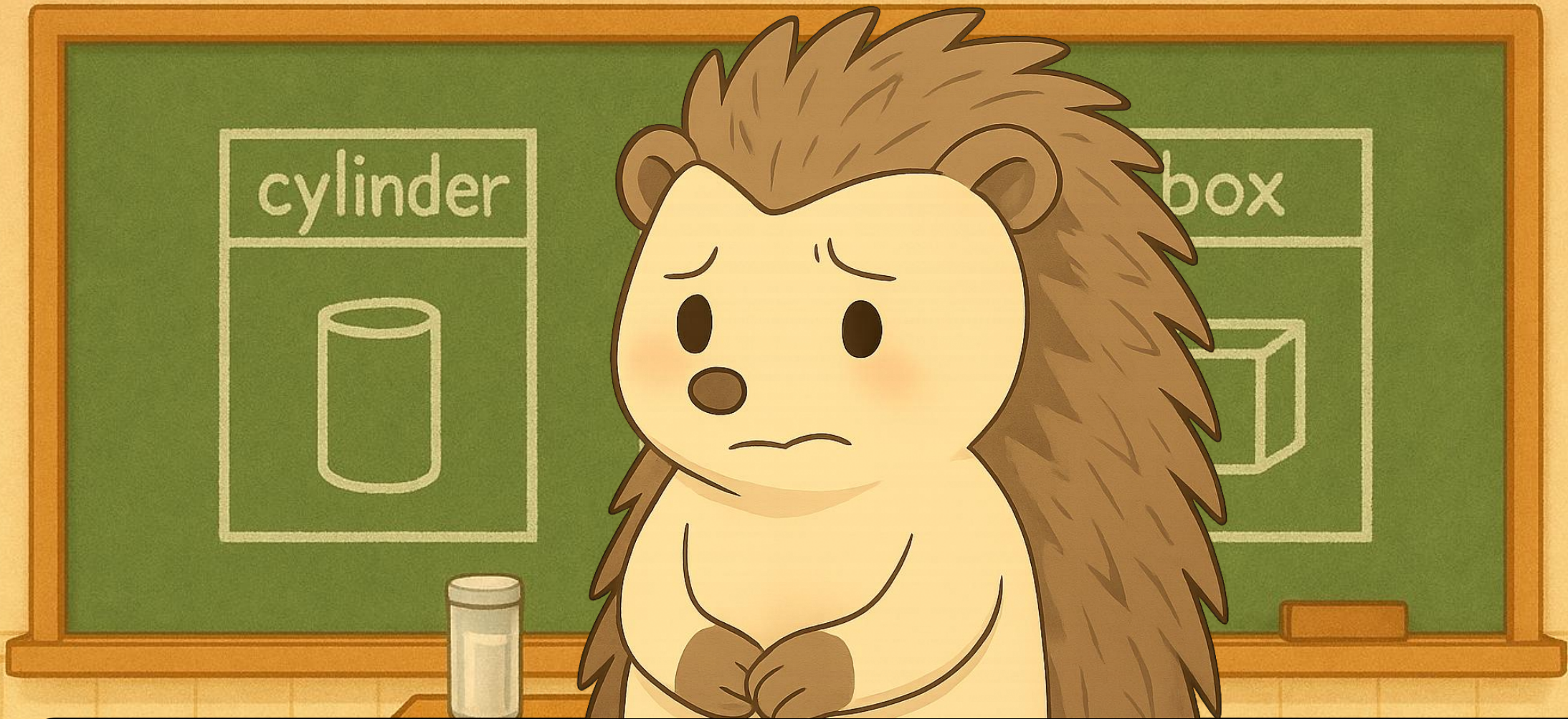
다들 깔깔대며 웃었지만,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로 했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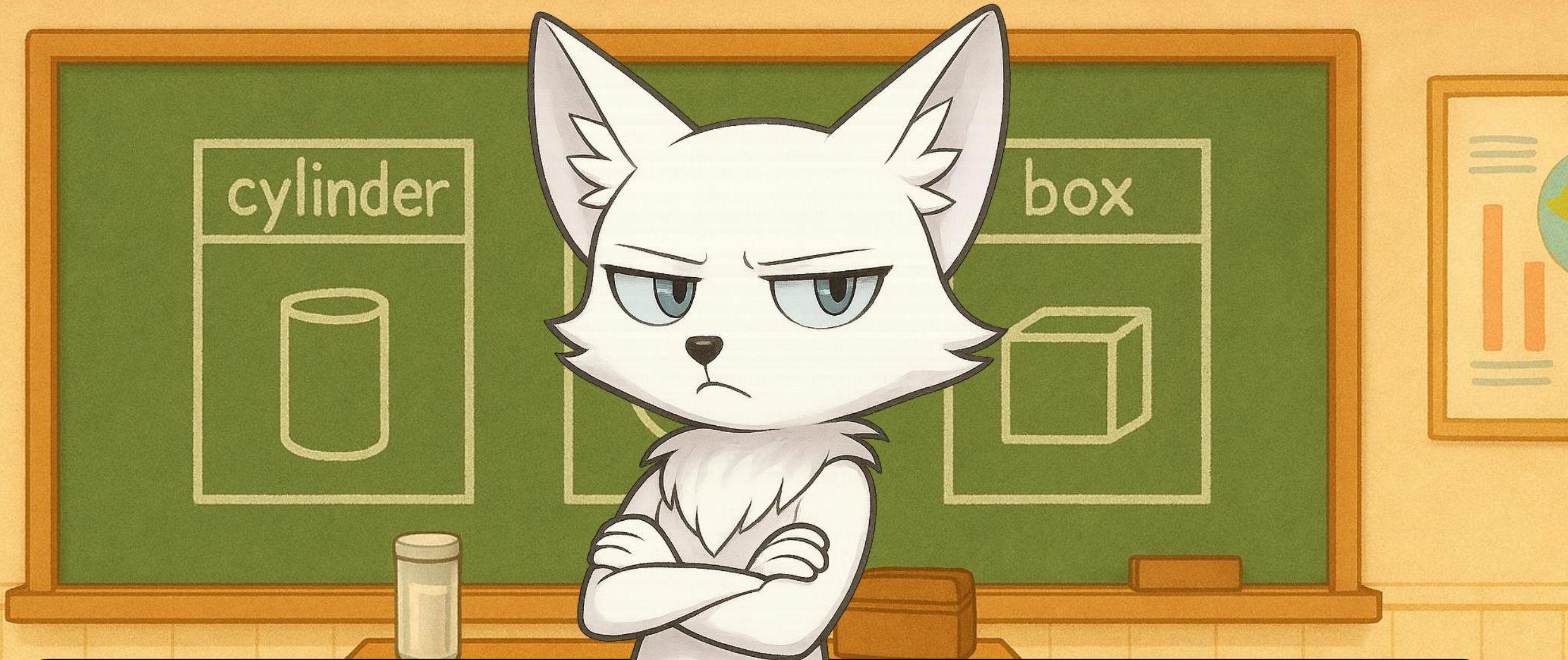
“어디까지 비슷하면 같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?”



“그냥 눈으로 보면 아는 거 아냐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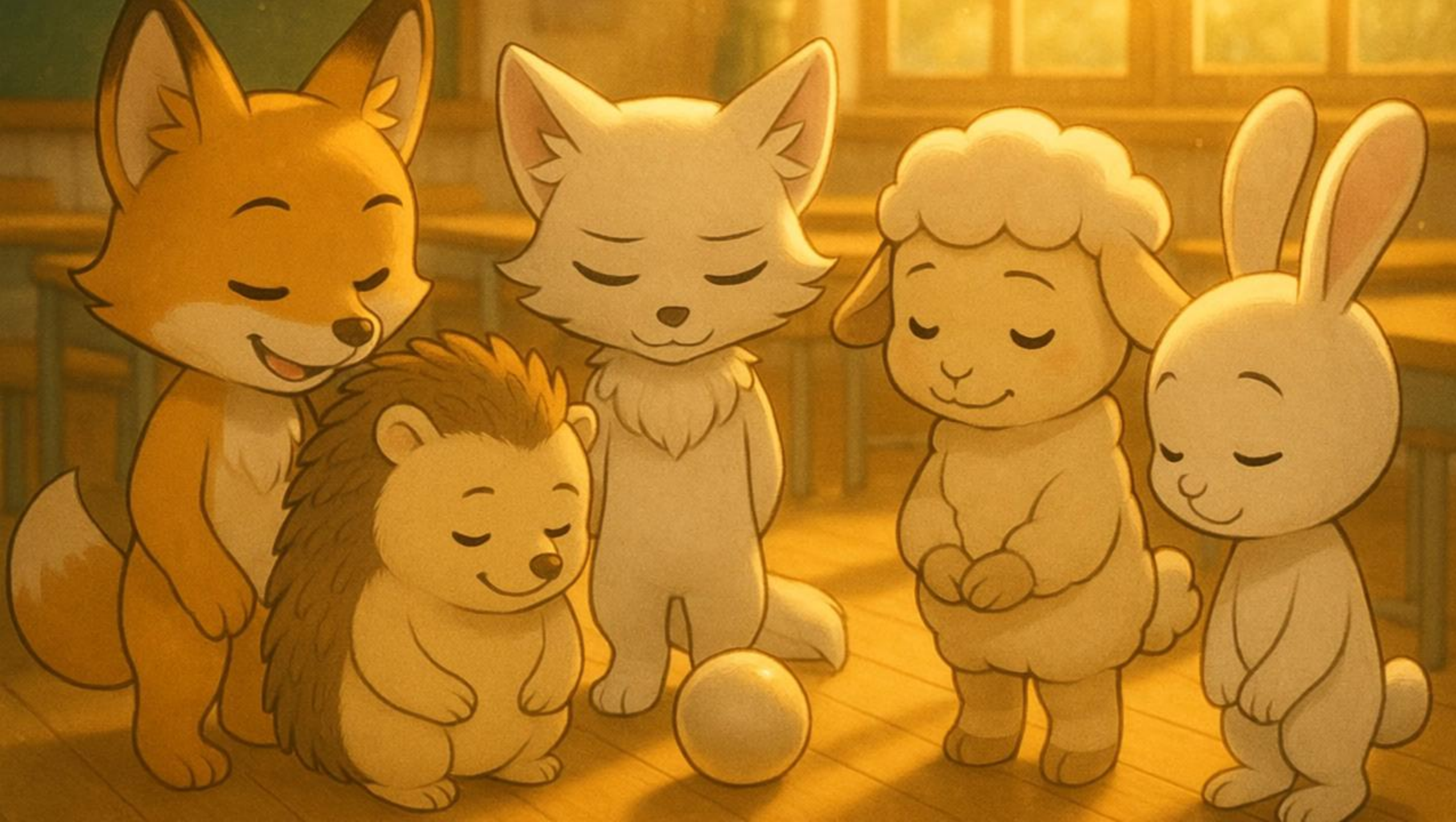
“아니야. 어떻게 움직이는데도 중요해.”



“...직접 굴려보는 것도 좋아.”



모두 고개를 끄덕였어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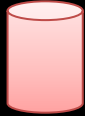


우리는 교실 안 물건들을  
열심히 보고 굴려도 보며



진짜 '같은 모양인지' 생각해보는 활동을 했지.

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.

어떤 물건들이    가 될 수 있을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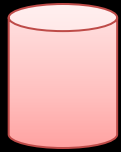
제한 시간 2분!

● 같지만 ●가 아닌 물건을 찾아봐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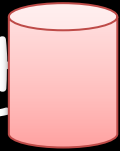
제한 시간 2분!

 같지만  가 아닌 물건을 찾아봐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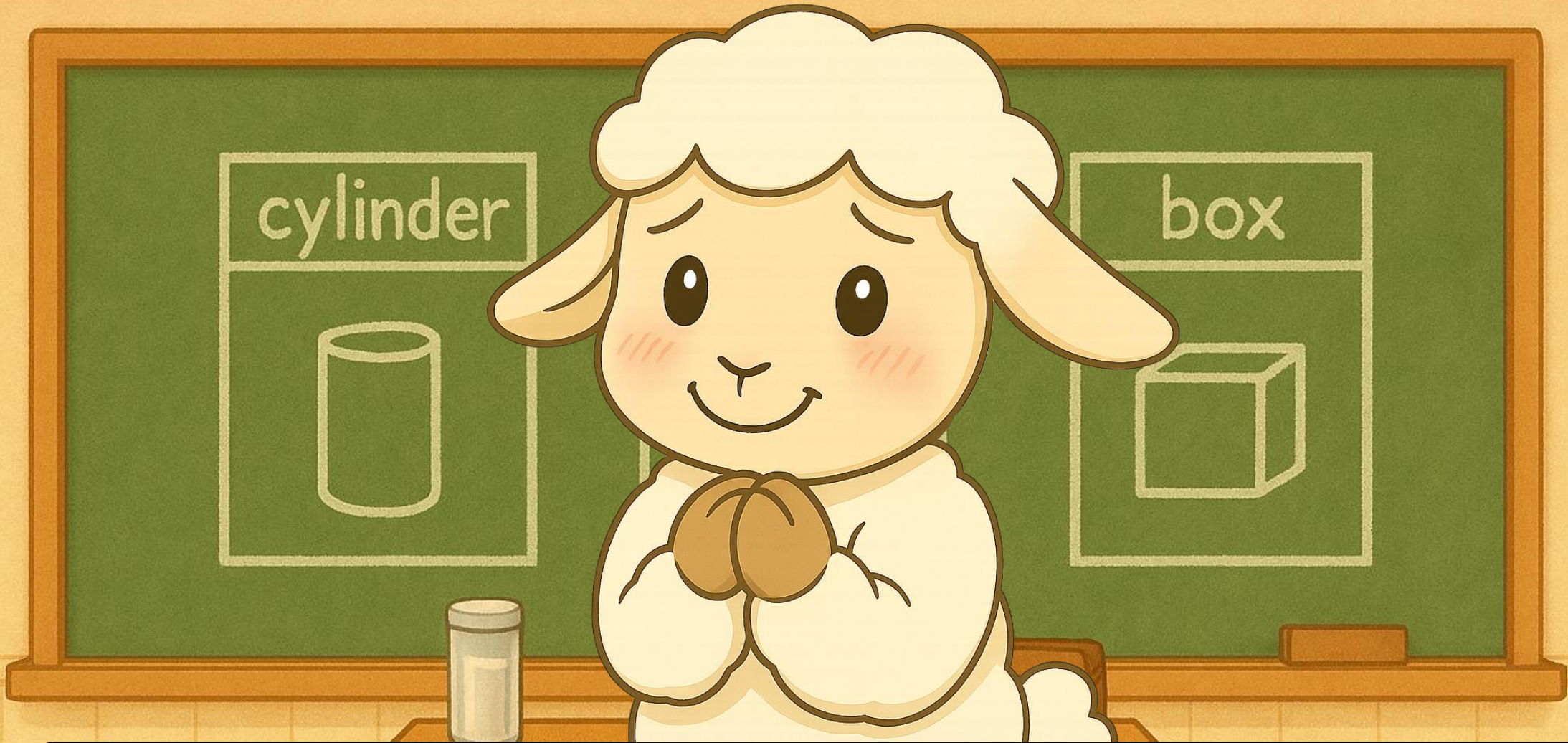
제한 시간 2분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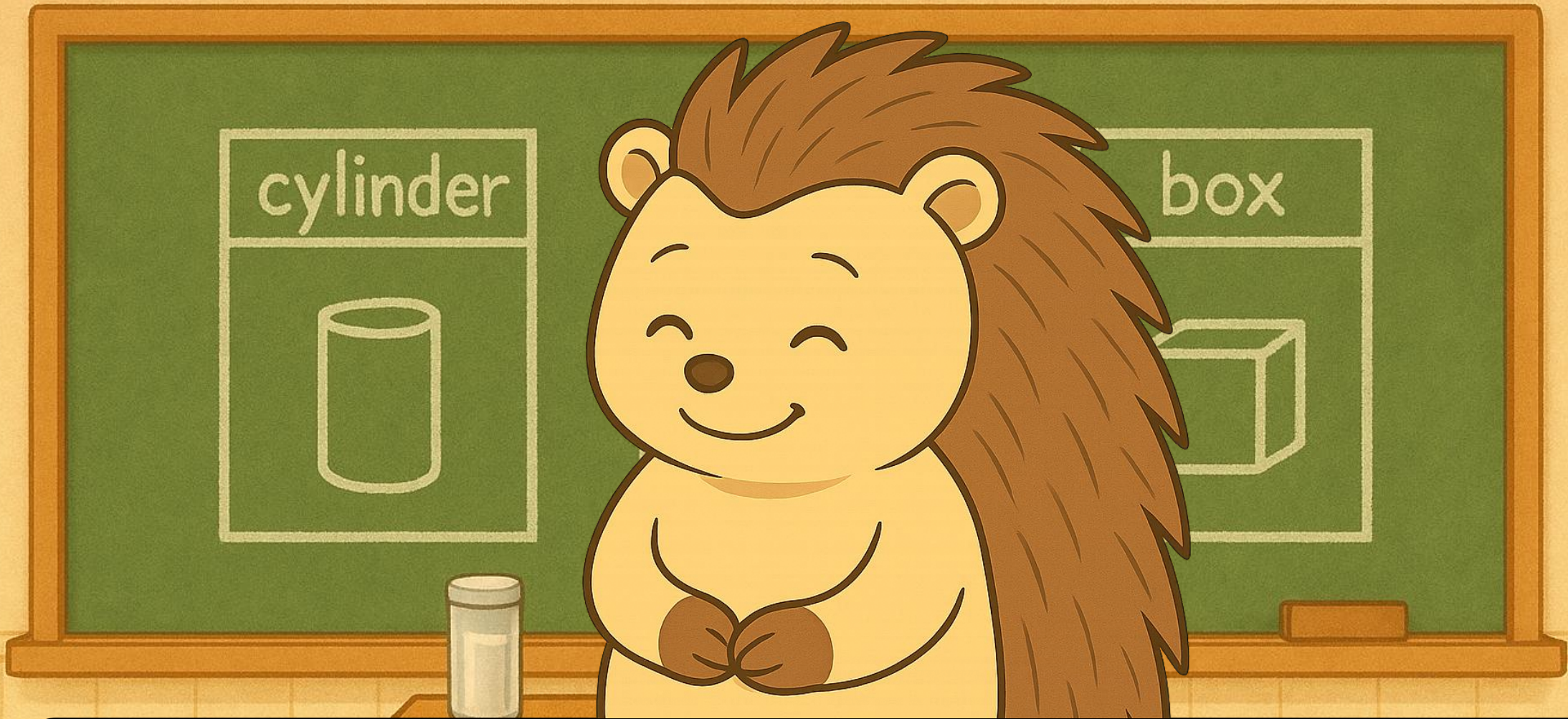
같지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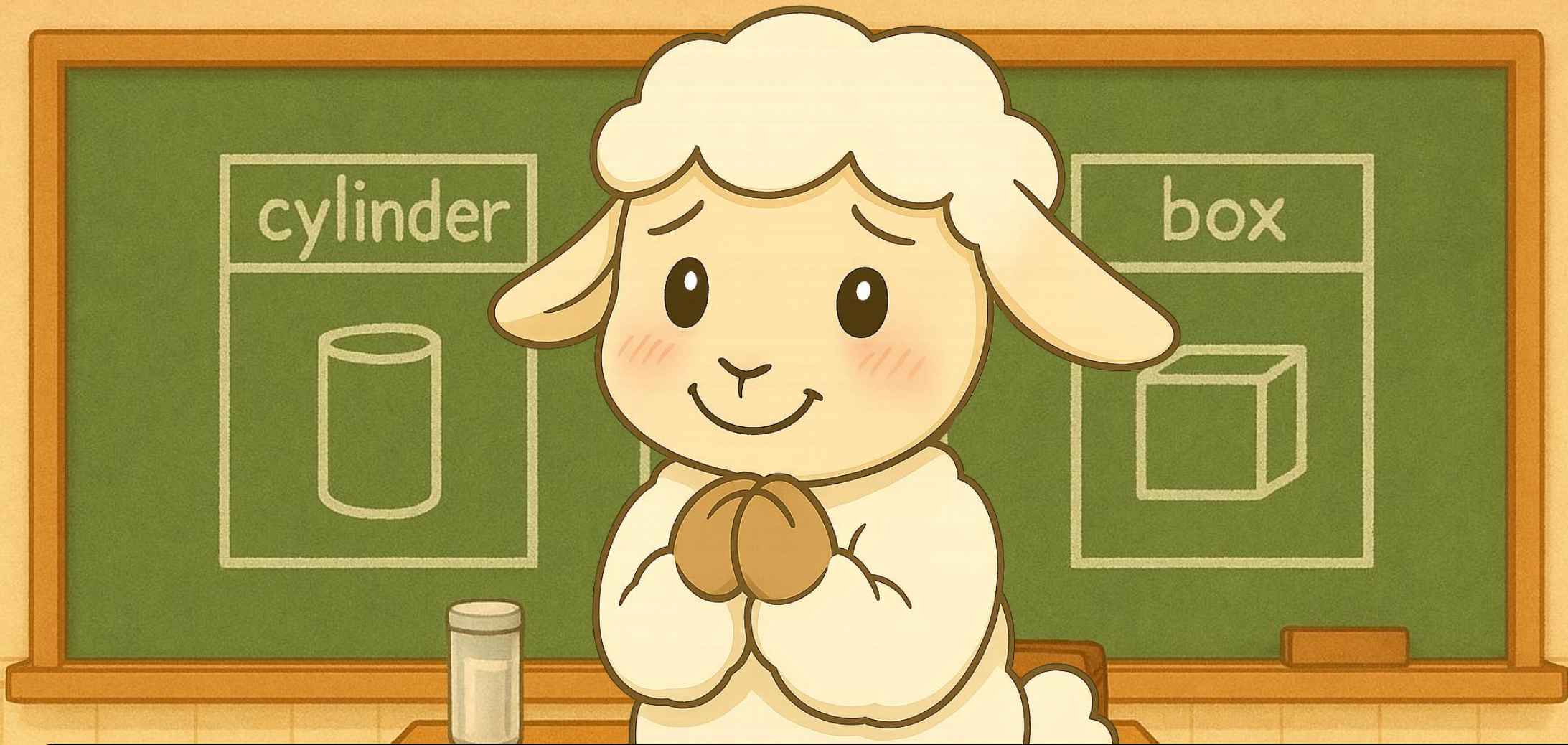
가 아닌 물건을 찾아봐요.



“오늘 완전 탐정처럼 행동했네, 우리!”



“응. 다음엔 ‘안 보고 맞히기’ 같은 것도  
해보면 재밌겠다.”



“설이가 옆에서 도와줘서  
모양에 대해 잘 알게 됐어!”



설이는 말없이 책상에 앉았지만,  
입꼬리 끝이 살짝 올라갔던 걸... 나는 봤어.

A close-up shot of a cute, anthropomorphic orange fox character with large, upright ears and a wide, happy smile. The character is positioned in the center of the frame. The background is a softly lit room with a window on the right showing a bright, hazy outdoor scene. On the left wall, a round clock and a framed picture are visible. The overall atmosphere is warm and cozy.

‘혹시... 지금 살짝 웃은 거야...? 귀엽다.’



왜인지 모르겠지만,  
설이가 웃는 걸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.

